

수능국어 임구권의

2022 고전시가 분석서 [수특 / 수완]

회파 국어 연구소 著

수능특강 47p 몽천요(夢天謠)

중요도: 5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느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分)일시 올탸다

뜻중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드러가니
옥황은 우스시되 군선이 꾸질느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百萬億蒼生)을 어니 결의 무르리

하늘히 이저신 제* 므슴 술(術)로 기워 낸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홀 제 엇던 바치* 일워 낸고
옥황께 슬와보자* 흐더니 다 묻흐야 오나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이저신 제: 어지러졌을 때

*엇던 바치: 어떤 공인(工人), 목수.

*슬와보자: 여쭙어보자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연군과 우국의 정

- ① 대구법의 활용
- ② 영탄법의 활용
- ③ 설의법의 활용
- ④ 안분지족의 태도 [Ex. 오호연월이 내 분일시 올탸다]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상해런가 꿈이런가 백옥경(白玉京)의 올라가니
옥황(玉皇)은 반기시나 군선(群仙)이 꺼리느다
두어라 오호연월(五湖煙月)이 내 분(分)일시 올탸다

<몽천요>에서 꿈은 현실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핵심 소재이다. 꿈속 상황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제1수>에서는 화자가 꿈속에서 임금에게 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곳에서 화자는 임금을 만난다. 하지만 신선 무리, 즉 화자의 반대 세력이 화자와 임금이 만나는 것을 꺼린다. 이에 화자는 '두어라(=됐다, 놔둬라)'라며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만이 자신의 분수에 맞음을 말한다. 안분지족의 자세로 겸허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뜻중에 꿈을 꾸어 십이루(十二樓)에 드러가니
옥황은 우스시되 군선이 꾸질느다
어즈버 백만억 창생(百萬億蒼生)을 어니 결의 무르리

<제2수>에서도 화자는 꿈에서 옥황상제를 만난다. 옥황상제는 웃지만(화자가 마음에 들지만) 신선 무리가 화자를 꾸짖는다.

이에 '어즈버(아이고)' 감탄 뒤에 백성의 삶을 물어볼 수 없기에 좌절하고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 '군선'은 자신을 질투하기만 하는 간신들로, 자신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으나 방해 세력 때문에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음에 화자는 안타까워한다.

하늘히 이저신 제* 므슴 술(術)로 기워 낸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홀 제 엇던 바치* 일워 낸고
옥황께 슬와보자* 흐더니 다 묻흐야 오나다

<제3수>에서 화자는 옥황상제에게 무너진 조정(정부)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논의를 할 길이 막혀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군선'과 같은 방해세력 때문에 좌절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화자는 안타까운 상황을 연달아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번번이 좌절됨을 보여주고 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싶은 자신의 진의가 간신들의 모함으로 인해 전해지지 않는 현실에 통탄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작가인 윤선도가 효종의 아우인 인평 대군에게 보낸 전체 3수의 연시조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우국(憂國)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윤선도는 효종과 인평 대군의 사부(師傅)를 지낸 적이 있는데, 1652년 효종은 스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66세인 윤선도를 정삼품 벼슬에 임명한 지 두 달 만에 정삼품의 벼슬에 임명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인사가 불공정한 것이라며 많은 이가 탄핵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 윤선도는 면직되는데, 이 작품은 그가 면직되고 난 뒤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연군과 우국의 정을 노래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로 일축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작가의 허탈감을 주목할 만하다. 「몽천요」 제1수에서는 꿈엔지 생시엔지 올라간 백옥경에서 옥황은 자신을 반겨주나 못 신선은 꺼린다고 하며, 그렇다면 다 그만두고 다시 오호연월(五湖烟月)로 돌아가겠노라고 하였다. 못 신선의 꺼림 속에 있느니 차라리 강호 속에 묻혀 시비를 잊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것이다.

제2수는 제1수의 부연·확장이며 은거지로 물러난 현재의 처지를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노래하였다. 제1수의 옥황의 반김이 웃음으로, 군선의 꺼림이 꾸짖음으로 바뀌어 태도의 강화가 드러난다. 끝 구에서는 백억만 창생에 대한 근심을 말하여 결국 옥황은 임금이고, 군선은 조정의 신하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제3수에는 군선은 보이지 않고 옥황만 나타난다. 역시 우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커다란 환란이 닥치거나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임금에게 물어보려 하였으나 채 묻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다.

수능특강 47p 꿈으로 차사를 삼아~

꿈으로 차사(差使)*를 삼아 먼 데 님 오게 하면
비록 천 리라도 순식(瞬息)에 오련마는
그 님도 님 둔 님이니 울동말동하야라

- 이정보, 「꿈으로 차사를 삼아~」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 ❶ 가정법의 활용 [Ex. 님 오게 하면]
- ❷ 화자와 임의 매개체로서의 꿈 [Ex. 꿈으로 차사를 삼아]
- ❸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 [Ex. 꿈으로 차사를 삼아]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꿈으로 차사(差使)*를 삼아 먼 데 님 오게 하면
비록 천 리라도 순식(瞬息)에 오련마는
그 님도 님 둔 님이니 울동말동하야라

<꿈으로 차사를 삼아>에서 중요한 시어는 '꿈'과 '임'이다. 먼 곳에 있는 임을 '꿈'을 통해 순식간에 임을 오게 하는 것이 화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꿈에서도 화자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 화자에게 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음은 애절함의 정서를 강화한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꿈'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임과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창의적인 발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장에서는 '님'이라는 어휘를 반복하며 임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꿈'을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통로로, 작품 속 인물들은 꿈속에서 현실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현실에서 억제된 만남과 바람을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꿈속 상황이 자신의 현실 상황과 차이가 없거나, 꿈에서 깨어난 후의 상황이 꿈을 꾸기 전과 변함이 없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에 꿈은 작품 속 인물들이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화자가 임에게는 다른 임이 있다고 말하는 점에서, 화자의 현실 상황과 꿈속 상황 모두 이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자가 꿈에서는 천 리나 먼 곳에 있는 임이 순식간에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점에서, 꿈이 현실에서의 바람을 실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능특강 53p 우국가

중요도: 5

학문(學文)을 후리티오 반무(反武)을 흐은 뜻은
삼척검(三尺劍) 들너메오 진심보국(盡心報國) 호러터니
흐 일도 흐음이 업스니 눈물계워 흐노라

<제1수>

임진년(壬辰年) 청화월(淸和月)의 대가서순(大駕西巡) 흐실
날의

곽자의(郭子儀) 이광필(李光弼) 되오려 맹서(盟誓)러니
이 몸이 부재(不才)론들도 알 니 업서 흐노라

<제2수>

나라히 못니줄 거슨 네 밧기 뇌여 업다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이대도록 더러인고
이 원수(怨讐) 못내 갑풀가 칼만 곁고 잇노라

<제3수>

성(城) 잇사되 막으라 네와도 흘 일 업다
삼백이십주(三百二十洲)의 엇디 엇디 덕킬게오
아모리 신신정졸(盡臣精卒)인들 의거 업시 어이흐리

<제4수>

도적(盜賊) 오다 뒤 막으리 아니 와서 알니로다
삼백이십주(三百二十州)의 누고누고 힘서 홀고
아모리 애고애고흐들 이 인심(人心)을 어리흐리

<제5수>

어와 설운디오 심각거든 설운디오
국가(國家) 간위(艱危)를 알 니 업서 설운디오
아모나 이 간위(艱危) 알아 구중천(九重天)의 슬오쇼셔

<제6수>

통곡관산월(慟哭關山月)과 상심압수풍(傷心鴨水風)을
선왕(先王)이 쓰실 적의 누고누고 보온게오
들 불고 바람 불 적이면 눈의 삼삼흐여라

<제7수>

뫼의 와 니르샤디 성태조(聖太祖) 신령(神靈)계셔
강상궁(降祥宮) 디으시고 수덕(修德)을 흐라테다
나라히 천년(千年)을 느르심은 이 일이라 흐더이다

<제8수>

마르쇼셔 마르쇼셔 이도(移都) 뜻 마르쇼셔
일백(一百) 적 권(勸)흐여도 마르쇼셔 마르쇼셔
향천년(享千年) 부발공기(不拔鞏基)를 더져 어히 흐시릿가

<제9수>

마르쇼셔 마르쇼셔 하 의심(疑心) 마르쇼셔
득민심외(得民心外)에는 흐을 일 업느이다
향천년(享千年) 몽중전교(夢中傳教)는 귀에 쟁쟁(錚錚)흐여이다
<제10수>

뵤나하 공부대답(貢賦對答) 쓸찌허 요역대답(徭役對答)
웃버슨 적자(赤子)들이 비굼과 설워흐니
원(願)컨댄 이 뜻 아르샤 선혜(宣惠) 고로 흐쇼셔

<제11수>

공명(功名)과 부귀(富貴)란 여사(餘事)로 허여두고
낭묘상(廊廟上) 대신(大臣)네 진심국사(盡心國事) 흐시거나
이렁성 저렁성흐다가 내종 어히 흐실고

<제12수>

힘빠 흐는 빠흠 나라 위(爲)흐 빠흠인가
옷밥의 못터이서 흘 일 업서 빠오눗다
아마도 근티디 아니흐니 다시 어히흐리

<제13수>

이논 저 외다 흐고 저논 이 외다 흐니
매일(每日)의 흐는 일이 이 빠흠 썬이로다
이 중의 고립무조(孤立無助)는 님이신가 흐노라

<제14수>

마를디여 마를디여 이 빠흠 마를디여
상가(尙可) 경동서(更東西)를 심각흐야 마를디여
진실(眞實)로 말기웃 말면 목목제제(穆穆濟濟) 흐리라

<제15수>

마리쇼셔 마리쇼셔 이 빠흠 마리쇼셔
지공무사(至公無私)히 마리쇼셔 마리쇼셔
진실(眞實)로 마리웃 마리시면 탕탕평평(蕩蕩平平) 흐리이다

<제16수>

이 이권들 즐거오며 저 디다 설울쇼냐
이기나 디나 나중의 전혜 부관(不關)흐다만은
아모도 췌뚱디 못흐니 그를 설워흐노라

<제17수>

이 외나 저 외나 중의 그만 저만 더져두고
흐을 일 흐오면 그 아니 죠홀손가
흐을 일 흐디 아니니 그 설워노라

<제18수>

이라 다 올흐며 제라 다 글올라
두 편이 곱트여 이 빠흠 아니마니
성군(聖君)이 준칙(準則)이 되시면 절노 말가 흐노라

<제19수>

어와 가소(可笑)로다 인간사(人間事) 가소(可笑)로다
 모 업시 궁그러 시비(是非)을 아니흐다
 아모나 공도(公道)을 직키여 모나 본들 엇더흐리

<제20수>

이제야 생각과라 모르고 흐는도다
 국가(國家)의 해(害)로운 줄 혈마 알면 그러흐라
 받드시 모르고 흐면 일너 불가 흐노라

<제21수>

알고 그린는가 모르고 그린는가
 아니 알오도 모로노라 그린는가
 진실(眞實)로 알고 그리면 닐너 무슴흐리요

<제22수>

무르쇼셔 술올이다 이 말습 무르쇼셔
 자상(仔詳)히 무르시면 역력(歷歷)히 술올이다
 하늘이 높고 먼 들노 술올 길 업스이다

<제23수>

아성조(我聖祖) 적덕(積德)으로 여경천세(餘慶千世) 흐옵시니
 선왕(先王)도 효칙(效則)흐샤 순천명(順天命) 흐시니다
 성주(聖主)는 이 뜻 알르샤 천만의심(千萬疑心) 말르쇼셔

<제24수>

빠홈애 시비만 흐고 공도시비(公道是非) 아닌는다
 어이흐 시사(時事) 이곳티 되엇노고
 수화(水火)도곤 겁고 더운 환이 날노 기러 가노마라

<제25수>

나라히 굿드면 딛이조차 구드리라
 딛만 도라보고 나라일 아니흐니
 흐다가 명당(明堂)이 기울면 어니 딛이 굿돌이요

<제26수>

어와 거주 일이 금은옥백(金銀玉帛) 거주 일이
 장안(長安) 백만가(百萬家)의 누고 누고 딛녀노고
 어즈아 임진년(壬辰年) 뜻글이 되니 거죽 일만 여기노라

<제27수>

공명(功名)을 원(願)찬커든 부귀(富貴)인들 비알소냐
 일간모옥(一間茅屋)의 고초(苦楚)히 혼자 안자
 밤낮의 우국상시(憂國傷時)를 못내 설위흐노라

<제28수>

-이덕일, 「우국가」

*반무: 문관이 무관이 됨.

*간위: 어려움과 위기.

*구중천: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임금'을 뜻함.

*지공무사: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탕탕평평: 싸움,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함.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과 나라에 대한 걱정

① 정서의 직접적 표출

[Ex. 눈물겨워하노라, 서러운지고, 못내 설위하노라]

② 비유의 활용 [Ex. 집-붕당, 명당-나라]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학문(學文)을 후리티오 반무(反武)을 흐온 뜻은
삼척검(三尺劍) 둘러메오 진심보국(盡心報國) 호러터니
흐 일도 흐음이 업스니 눈물계워 흐노라
 <제1수>

임진년(壬辰年) 청화월(淸和月)의 대가서순(大駕西巡) 흐실
날의
곽자의(郭子儀) 이광필(李光弼) 되오려 맹서(盟誓)러니
이 몸이 부재(不才)론들도 알 니 업서 흐노라
 <제2수>

나라히 못니줄 거손 네 밧긔 뇌여 업다
의관문물(衣冠文物)을 이대도록 더러인고
이 원수(怨讐) 못내 갑풀가 칼만 굴고 잇노라
 <제3수>

성(城) 잇사되 막으랴 네와도 홀 일 업다
삼백이십주(三百二十洲)의 엇디 엇디 덕킬게오
아모리 신신정졸(盡臣精卒)인들 의거 업시 어이흐리
 <제4수>

도적(盜賊) 오다 뒤 막으리 아니 와서 알니로다
삼백이십주(三百二十州)의 누고누고 힘서 홀고
아모리 애고애고흐들 이 인심(人心)을 어리흐리
 <제5수>

이 작품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개탄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국정이 어지러워짐을 보고 사직한 후 낙향하여 당쟁을 그만두려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작품을 썼다.

<제1수>는 화자가 무관이 된 계기를 담고 있다. 화자는 문관이 되기 위한 과거 시험을 준비했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삼척검'을 둘러메고 무관이 되었다. <중장>에서 화자는 자신이 한 일이 없음에 슬퍼한다. 임진왜란의 참상을 생각하면 화자가 정말 한 일이 없기보다는 겸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2수>에서 화자는 곽자의, 이광필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으나 자신의 재주를 알 사람이 없음을 슬퍼한다.

<제3수>에서 화자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문물을 더럽힌 왜적에 대해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하고 있다.

<제4수>에서 화자는 아무리 충신과 강한 군사가 있더라도 지킬 성이 없어 제대로 막을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초장>에서 성이 있음에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을 지적한 표현이다. 실제로 임진왜란까지의 방어체계는 '제승방략' 체계였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화자는 이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장>에서 '삼백이십주

의 엇디 엇디 덕킬게오'가 조선의 군사 체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다. '-의'는 중세국어에서 '-을/를'의 의미로도 쓰였음을 감안할 때, 군사 체계가 넓은 조선 땅의 320 주'를' 지키기에는 비효율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중장>에서 체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므로 '신신정졸'도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한다.

<제5수>에서 화자는 왜적이 쳐들어와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다. <제4수>에서 언급한 바 있듯, 조선은 군사 체계부터 전쟁 초기 대응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를 화자는 안타까워 하는 것이다.

어와 설운디오 생각거든 설운디오
국가(國家) 간위(艱危)를 알 니 업서 설운디오
아모나 이 간위(艱危) 알아 구중천(九重天)의 솔오쇼셔
 <제6수>

통곡관산월(慟哭關山月)과 상심압수풍(傷心鴨水風)을
선왕(先王)이 쓰실 적의 누고누고 보온게오
들 불고 바람 불 적이면 눈의 삼삼흐여라
 <제7수>

뫼의 와 니르샤디 성태조(聖太祖) 신령(神靈)계셔
강상궁(降祥宮) 디으시고 수덕(修德)을 흐라테다
나라히 천년(千年)을 느르심은 이 일이라 흐더이다
 <제8수>

마르쇼셔 마르쇼셔 이도(移都) 뜻 마르쇼셔
일백(一百) 적 권(勸)흐여도 마르쇼셔 마르쇼셔
향천년(享千年) 부발공기(不拔鞏基)를 더져 어히 흐시릿가
 <제9수>

마르쇼셔 마르쇼셔 하 의심(疑心) 마르쇼셔
득민심외(得民心外)에는 흐올 일 업느이다
향천년(享千年) 몽중전교(夢中傳教)는 귀에 쟁쟁(錚錚)흐여이
다
 <제10수>

<제6수>에서 화자는 나라의 어려움과 위기를 걱정하며, 이런 위기에 무관심한 당대의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사 시간에 임진왜란 발발 이전 일본을 방문한 통신사 등이 전쟁 대비의 견해를 달리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백성의 혼란과 전쟁 대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을 고려해 선조는 판단을 미루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진 것이다. 조선의 군사가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제7수>에서 화자는 임금이 쓴 시 '통곡관산월'과 '상심압수풍'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으며 그 당시 임금의 심정이 잊히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듯 또렷하다며 현재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제8수>에서 화자는 꿈속에서 태조 신령이 나라가 천년을 누리려

면 강상공을 짓고 덕을 닦으라 하였다며, 나라를 위한 충심을 내 보이고 있다. 신하로서의 화자가 꿈속에서까지 임금의 만나 나라를 위한 대책을 생각할 정도로 충심이 깊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제9수>에서 화자는 도읍 천도를 말리고 있다. <초장>에서 AABA의 구조로 운율을 형성하고 <중장>에서도 '마르쇼셔'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진심을 강조하고 있음이 핵심이다.

<제10수>에서도 AABA 구조가 나타난다. 화자는 민심을 얻는 일에만 신경 쓸 것을 강조하는데 <제8수>에서 선왕의 가르침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비나하 공부대답(貢賦對答) 쓸찌허 요역대답(徭役對答)
 옷버는 적자(赤子)들이 비좁과 설위흐니
 원(願)컨댄 이 뜻 아르샤 선혜(宣惠) 고로 흐쇼셔
 <제11수>

공명(功名)과 부귀(富貴)란 여사(餘事)로 혀여두고
 낭묘상(廊廟上) 대신(大臣)네 진심국사(盡心國事) 흐시거나
 이렁성 저렁성흐다가 내종 어히 흐실고
 <제12수>

힘빠 흐는 빠흠 나라 위(爲)흐 빠흠인가
 옷밥의 못터이셔 흘 일 업서 빠오눗다
 아마도 근티디 아니흐니 다시 어히흐리
 <제13수>

이는 저 외다 흐고 저는 이 외다 흐니
 매일(每日)의 흐는 일이 이 빠흠 썬이로다
 이 중의 고립무조(孤立無助)는 님이신가 흐노라
 <제14수>

마롤디여 마롤디여 이 빠흠 마롤디여
 상가(尙可) 경동서(更東西)를 싱각흐야 마롤디여
 진실(眞實)로 말기웃 말면 목목제제(穆穆濟濟) 흐리라
 <제15수>

<제11수>에서 화자는 가혹한 조세 수탈을 비판한다. <초장>의 '공부대답'과 '요역대답'은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공물과 부역으로 이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호소하고 있다. '적자'는 핏덩이인 갓난아기를 뜻하는데 백성의 어버이로서의 임금의 입장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제12수>~<제15수>에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제 잇속만 생각하여 봉당 간 싸움을 일삼는 대신들을 비판하고 있다. 화자는 대신들을 비판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임금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임금의 심정을 '고립무조', 즉 홀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리쇼셔 마리쇼셔 이 빠흠 마리쇼셔
 지공무사(至公無私)히 마리쇼셔 마리쇼셔
 진실(眞實)로 마리웃 마리시면 탕탕평평(蕩蕩平平) 흐리이다

<제16수>
 이 이권들 즐거오며 저 디다 설울쇼냐
 이기나 디나 나중의 전혜 부관(不關)흐다만은
 아모도 췌듯디 못흐니 그를 설위흐노라
 <제17수>

이 외나 저 외나 중의 그만 저만 더져두고
 흐올 일 흐오면 그 아니 조홀손가
 흐올 일 흐디 아니니 그 설위노라
 <제18수>

이라 다 올흐며 제라 다 글을라
 두 편이 꺾트여 이 빠흠 아니마니
 성군(聖君)이 준칙(準則)이 되시면 절노 말가 흐노라
 <제19수>

어와 가소(可笑)로다 인간사(人間事) 가소(可笑)로다
 모 업시 궁그러 시비(是非)을 아니흐다
 아모나 공도(公道)을 직키여 모나 본들 엇더흐리
 <제20수>

<제16수>~<제20수>도 봉당 간의 싸움을 비판하는 것은 같은데 화자는 봉당 간 싸움의 해결책으로 임금이 직접 공정한 대안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20수>에서 화자는 임진왜란을 겪고도 당파 싸움을 그치지 않는 대신들을 보며 인간사가 가소롭다며 환멸을 느끼고 있다.

<중장>에 '모가 난'다는 표현은 당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라를 위한 바른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야 싱각과라 모르고 흐는도다
 국가(國家)의 해(害)로운 줄 혈마 알면 그리흐라
 반드시 모르고 흐면 일너 불가 흐노라
 <제21수>

알고 그린는가 모르고 그린는가
 아니 알오도 모로노라 그린는가
 진실(眞實)로 알고 그리면 닐너 무슴흐리요
 <제22수>

무르쇼셔 술올이다 이 말슴 무르쇼셔
 자상(仔詳)히 무르시면 역력(歷歷)히 술올이다
 하놀이 눕고 먼 들노 술올 길 업스이다
 <제23수>

아성조(我聖祖) 적덕(積德)으로 여경천세(餘慶千世) 흐옵시니
 선왕(先王)도 효칙(效則)흐샤 순천명(順天命) 흐시니다
 성주(聖主)는 이 뜻 알르샤 천만의심(千萬疑心) 말르쇼셔
 <제24수>

빠흠애 시비만 흐고 공도시비(公道是非) 아닌는다

어이헌 시사(時事) 이곳터 되엇는고
 수화(水火)도곤 겁고 더운 환이 날노 기러 가노마라
 <제25수>

<제21수>~<제25수>에서도 봉당 간 싸움 비판이 주를 이룬다. 주목할 부분은 <제23수>이다. <제23수>에서 화자는 자신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물어주소서, 제가 사퇴리다.’는 고립무조하여 나라에 대해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임금의 처지를 헤아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작가가 벼슬을 사직하고 낙향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봉당 정치로 얼룩진 조정을 자신의 목소리가 뚫기에는 너무도 어렵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라히 굿드면 답이조차 구드리라
 답만 도라보고 나라일 아니흐니
 흐다가 명당(明堂)이 기울면 어니 답이 굿돌이요
 <제26수>

어와 거주 일이 금은옥백(金銀玉帛) 거주 일이
 장안(長安) 백만가(百萬家)의 누고 누고 딛녀는고
 어즈아 임진년(壬辰年) 뜻글이 되니 거죽 일만 여기노라
 <제27수>

공명(功名)을 원(願)찬커든 부귀(富貴)인들 비알소냐
 일간모옥(一間茅屋)의 고초(苦楚)히 혼자 안자
 밤낫의 우국상시(憂國傷時)를 못내 설워호노라
 <제28수>

<제26수>~<제28수>는 우국가를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마지막으로 각 당에게 충고하고, 거짓말이 들끓는 세상에 한탄한다.

이 작품의 결사인 <제28수>에서 화자는 공명을 원하지 않으므로 부귀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초가집에서 홀로 힘들게 살고 있음을 내비친다. 그러나 불우한 자신의 상황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나라를 걱정할 때 비로소 서러움을 느낀다며 자신의 충심을 간절히 전하고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우국가」 28수는 광해군이 어지러운 정치를 펴고 있을 당시, 이덕일이 고향 함평에 머물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지은 작품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무과에 급제한 인물로, 이순신의 막하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연시조인 「우국가」는 전체적으로 ‘서사-본사-결사’의 구조를 지닌다. <제1수>는 서사로서 자신의 생애와 작품 창작의 동기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28수>는 결사로서 혼탁한 현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그 사이에 관료의 무능과 봉당 간 정쟁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임금을 향한 근심과 애정,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구국의 방안 등이 비분강개한 어조로 제시되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나라와 시대를 근심하는 충신의 마음을 담아낸 우국 시조이다. 작가는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과 봉당이라는 정당 쓰움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그 폐해를 지적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직설적이며 강경한 어조가 특징적이다. 외적에게는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당쟁 싸움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운율 구조나 시구의 반복 지점은 찾기 쉬우나 특히 ‘구중천’ 같은 우국 시조 특유의 어휘는 상징성이 강해 의미 유추가 어려우므로 외위두자.

수능특강 61p 규원가(閨怨歌)

중요도: 5

엇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맨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候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하
 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
 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이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삼오(三五) 이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
 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냐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이서
 백마(白馬)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문
 열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어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
 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슬(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굽이굽이 끊쳤세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
 니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

- ① 직유법
- ② 설의법
- ③ 대구법
- ④ 동일한 문장구조의 반복
- ⑤ 감정이입
- ⑥ 고사 인용
- ⑦ 과거와 현재의 대비
- ⑧ 계절적 이미지
- ⑨ 설화의 차용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엇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행락(少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늘거야 설운 말씀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候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
 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
 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이서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어름 디디는 듯
 삼오(三五) 이팔(二八) 겨오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뵈오리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
 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필소냐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라

〈규원가〉의 ‘규’는 ‘규방의 여인’을 의미하고, ‘원’은 ‘원망의 감정’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여인인 화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이 전개되는데,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래서 표현법을 묻는 문제에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은 작품이다. 이는 허난설현이 중국 본토의 문인들에게 한시로 우위를 점할 정도로 뛰어난 문학가였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허난설현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천재였던 것에 비하면 남편은 너무도 초라했다. 남편이 정말 모습을 인간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게 보통 능력으로는 허난설현과 비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선비들이 허난설현을 찾아 문장을 나누었는데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남편은 열등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허난설현으로부터 도망쳐 인생을 유희와 향락으로 보내는 길을 택한다.

〈1행~15행〉은 화자의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의 비교가 핵심이다. ‘천연여질/설빈화안’에서 ‘면목가증’으로 변했다. 세월이 흘러서 늙었기도 하겠지만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표정에 묻어 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남편감은 ‘공후배필, 군자호구’에서 ‘장안유협 경박자’로 추락하였다. 화자는 원하는 남편감과 결혼하지 못하고 세월만 무상하게 흘러보냈다. 전반적으로 화자의 한탄과 슬픔이 서려 있다.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읽어가야 한다.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이서
 백마(白馬)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르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문
 열두 매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스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16~28행〉에서 임은 호화로운 복장을 입고 바깥으로 나도는데, 화자는 임이 어디에 가셨는지 알 수 없다.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동반되는데, 화자는 원망과 그리움의 감정, 즉 애증(愛憎)의 감정이 동반된다.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은 ‘겨울의 자취’와 ‘여름의 곳은비’가 활용되면서 더욱 심화된다. 또한 ‘실술’이 우는 모습에서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야 굽이굽이 끊쳤세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
 니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29~37행〉에서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는 노력이 나타나 있다. ‘녹기금, 벽련화 한 곡조’가 바로 그것과 관련된 시어이다. 〈33행~34행〉에 고사도 언급되어 있는데, 모두 ‘벽련화의 노래’와 관련지어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물론, 노래를 부른다고 하여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37행〉을 보면 여전히 화자는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하여라

〈38~50행〉에서 화자는 그리운 입을 보기 위해 꿈을 이용한다. 그러나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된다. 만남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다음으로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견우직녀와 비교하는데, 적어도 견우와 직녀는 일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자신은 그것조차 만나지 못한다며 한탄한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활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므로 참고해두자. 이러한 감정은 다시 새에 이입되며, 자신의 서러움을 강조한다.

화자의 문제적 상황은 입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다. 화자는 이런 자신의 운명을 '박명한 홍안'이라 언급하는데 이 표현에서 한탄, 슬픔, 괴로움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규방 가사의 하나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여,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자신의 상황을 서글퍼하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는 것으로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고사나 관용구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한스러운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내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선조 봉건제도 아래서 빈방[空閨]을 지키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버림받은 여인의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젊음은 가 버리고 이제 늙어 지난날을 돌이켜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장안의 건달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얼음 밟듯이 조심스런 세월을 보냈으나, 자신의 아름다움마저 변해 버리자 남편은 떠나간다. 다음은 떠난 입에 대한 질투와 그리움으로 이미 떠난 임인데도 그가 어느 여인에게 머물고 있는지 안타까워하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신세인데도 더욱 그리워지는 역설에 시달린다. 시름을 자아내는 데는 네 계절이 모두 다름없다. 특히 빈방을 지키는 여인의 한이 하루 중 밤이 부각되어 드러난다. 찬 겨울밤, 길고 긴 여름밤, 경치가 시름을 안겨주는 봄밤, 달빛 비치고 귀뚜라미 우는 가을밤이 모두 그녀에게는 슬픔의 시간이 된다. 다음에는 시름을 이기려는 주인공의 처절한 노력이 묘사된다. 등불을 돋우고 거문고를 타다가 잠을 청하여 꿈속에서나마 현실의 욕구불만을 해소해보려 하기도 하고, 풀숲에 우는 풀벌레에게 자신의 한을 전가시키기도 한다.

수능특강 222p 속미인곡

중요도: A

네 가는 더 각지 본 듯도 혼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호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 흥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터야 어즈러이 호똥편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그터 빠져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설위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들 그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호야 디내시며
 추일동텨(秋日冬天)은 뒤라셔 피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피 네와 궂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좁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자 호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가
 내 므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쟝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그의 가 톱 길히나 보라 호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논고
 강텨(江天)의 혼자 서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호더이고
 모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青燈)은 놀 위호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호야 풋증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그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므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호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호며
 정(情)을 못다 호야 목이조차 메여호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줌(은 엇디 씨똥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곁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뿐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 정철, 「속미인곡」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임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연군지정

- ❶ 감녀와 을녀의 대화에 따른 시상 전개
- ❷ 대화체
- ❸ 직설적이고 소박한 어조
- ❹ 과장법
- ❺ 대구법
- ❻ 설의법
- ❼ 상징적인 시어의 사용 [Ex. 구름, 안개, 바람]
- ❽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 [풋잠, 오던된 계성(鷄聲)]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호야 니별(離別)호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늘을 보라 가시논고

<속미인곡>은 정철의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작품의 구조를 두 여인의 대화로 설정한 것과 여성 화자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은 연계 교재에서 <보기> 지문에 등장한 개념인데, 고전 시가의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이 모티프를 사용한 다른 작품들과 한데 묶어 문학 이론과 함께 출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꼭 익숙한 개념으로 만들자.

<1행~3행>은 갑녀가 을녀에게 말을 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을녀는 분명 천상 백옥경에 있어야 하는데 지상 세계에 내려와 있음에 의문을 느끼고 을녀에게 말을 건다.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 혼가마는
 었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타야 어즈러이 호뎃편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
 누어 심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내 몸의 지은 죄 죄기 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름이라 허물호라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을녀가 갑녀의 부름에 응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발화자의 전환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심지어 갑녀는 거의 말이 없다.

을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던 임이 갑자기 자신을 내친 것을 서러워하고 있다.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었디 다르신고'에서 자신에 대한 임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녀는 임과의 이별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가 많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서 을녀의 운명론적 가치관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대구법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가사처럼 긴 글은 리듬감이 없으면 시로 읊을 수가 없으므로 가사에서 대구법은 사실상 필수에 가까운 표현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글란 심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피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틀 ㄱ튼 얼굴이 편호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었디호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뒤라셔 피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피 네와 ㄱ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었디 자시논고

갑녀가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사라진다. 을녀는 임에 대한 걱정을 일년 내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 '춘한고열과 추일동턴'이다. 이러한 화자의 반응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임을 향한 화자의 근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죽조반 조석 피'는 '기나긴 밤의 잠'과 연결되어 하루라는 주기에 따라 반복되는 임의 일상적인 삶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프려나 아자 호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므옴 둘 더 었다 어드러로 가쟈트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크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ㄱ의 가 비 길히나 보라 호니
 비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곁렷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희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호더이고

을녀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높은 산으로 직접 올라간다. 화자는 속세와 격리된 공간에 있어서 속세의 소식을 전하러 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 있는 곳을 보려 하니 '구름, 안개'가 임을 가리고 있어 볼 수가 없다. 이들은 화자의 서러움을 심화시키는 대상이며 만남을 방해하는 대상 그리고 작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작가의 정적(政敵)을 상징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구름, 안개'가 햇빛과 달빛을 가리는 존재임을 고려할 때 임금의 은덕을 가리는 간신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원래 나 빼고 다 간신이고 악당인 법이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직접 배를 타고 나가보려 하지만 사공이 없다. 이때 빈 배는 방해물보다는 화자 자신의 공허한 심정을 형상화한 사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고 싶은 마음은 배로 구현이 되었는데 배를 움직일 주인이 없다. 즉, 임이 부재한 화자의 상황과 일치한다.

모침(茅簷) 촌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호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호야 풋증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호야 꿈의 님을 보니
 옥(玉) ㄱ튼 얼굴이 반(半)이 나마 늘겨세라
 므옴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호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호며
 정(情)을 못다 호야 목이조차 메여호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잠은 었디 씨뎃던고

이전의 산과 강을 간 이후로 어느덧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다. 화자는 힘이 다 빠져 풋잠을 자는데 이때 꿈에서 임이 나온다. 꿈

은 이전의 방해물들과 달리 입과 화자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물이다. 화자는 자신 속에 있는 말들을 전부 전하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때 닭이 잠을 깨운다. 그토록 원하던 입과의 재회를 꿈속에서나마 이뤘는데 그 꿈조차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을녀의 감정선을 잘 따라가고 있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꿈이 순식간에 흘러간 것에서 비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학에서 시간은 비극성을 조절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일상 속에서도 당장 기대되는 일이 있으면 설레서 잠이 안 오고, 지치고 힘들 때 1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는 경험을 한 것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 고려가요 〈만전춘별사〉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과 엮어 공부하는 것이 좋다.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들이야크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끝내 을녀는 서러워하며 차라리 죽어 '지는 달'이 되어 입에게 빛으로 다가가고 싶다고 전한다. 마지막 행에 감녀가 등장한다. 감녀는 굶은 비가 되어 입의 옷깃을 적시라고 조언한다. 이는 을녀 속에 담겨 있는 입에 대한 원망 섞인 그리움과 그 간절함을 포착한 조언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을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작가 자신이 스스로 해주는 조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일반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흐르며 모든 존재가 한번 바뀐 것은 다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므로, 순간성에 따라 순행하는 직선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에서의 시간은 순행하는 직선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물론 인위적으로 재구조화되어 어떤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순환적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하고, 같은 시간도 상황에 따라 더욱 빠르게 혹은 더욱 더디게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을 인식하는 것은 시간의 순행성과 순간성을 초월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사미인곡(思美人曲)」의 속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군(戀君)의 뜻을, 입과 이별한 한 여인의 애달픈 목소리로 노래하여 가사 문학의 백미로 평가되고 있다. 화자의 독백인 「사미인곡」과는 달리,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체로 진행된다는 점, 한자 속어와 전고(典故)를 배제하고 우리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낸 점, 과장된 정서 표현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진실하게 정서를 절절하게 표현한 점에서 참신성을 엿볼 수 있다. 김만중도 그의 저서 『서포만필』에서 전후(前後)미인곡 중 우리말 구사의 뛰어난과 내용의 간절함을 들어 「속미인곡」을 더 높이 평가하였다.

수능특강 247p 귀뚜리 저 귀뚜리~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 내어 사창(紗窓) 여원잠을 살뜰히도 깨우나니
 두어라 네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無人) 동방(洞房)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귀뚜리 저 귀뚜리~」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귀뚜라미에 대한 정서

- ❶ 객관적 상관물
- ❷ 시적 대상과 자신의 동일시
- ❸ 청각적 심상의 활용
- ❹ 희화화를 통한 해학성 [Ex. 종장]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 내어 사창(紗窓) 여원잠을 살뜰히도 깨우나니
 두어라 네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無人) 동방(洞房)에
 내 뜻 알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 작품은 자아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사물이나 사건 등 외부의 세계를 해석하는 주관화를 활용한 시조이다.
 <초장>에서 화자는 슬프게 울고 있는 귀뚜리에게 ‘어여쁘다’며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중장>에서 귀뚜리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여원잠을 살뜰히도 깨우는 행위로 인해 원망으로 변화한다. ‘지는 달 새는 밤’은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결핍감과 유기적으로 조응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
 <종장>에서 두어라와 함께 귀뚜리는 ‘무인 동방’에서 홀로 지내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로서 귀뚜리에 대한 정서는 ‘동병상련’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주객대비 구도는 고전시가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황조가>, <만전춘별사>, <심청가> 등이 이를 활용한 작품의 예이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주관화의 장르인 서정시에서는 대개 자아의 상황과 정서를 중심으로 사물이나 사건 등 외부의 세계를 해석하고 수용한 결과를 노래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때 자아는 외부의 세계를 자신의 상황이나 정서와 동일시하거나, 반대로 서로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배치하게 된다. 그중에서 후자를 일러 주객 대비 구도라 한다면, 이러한 구도를 가진 작품들은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준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여인의 외로움이 가슴 저미게 스며 있는 이 노래는 사실 시조에서는 드물게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노래이다. 임을 향한 애절한 그리움의 심경을 귀뚜라미에 의탁하여 읊은 이 작품은 감정이입(感情移入)의 수법을 사용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게 한다.

수능특강 250p 임이 오마 하거늘~

임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오는가 가는가 건넛산 바라보니 거뭇회끗 서 있거늘 저야 임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걸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열사흔날 값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히도 날 속여거다

모쪼록 밤이기 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괘라
-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입을 기다리는 조바심

- ① 과장법 [Ex. 중장]
- ② 열거
- ③ 착각 모티프
- ④ 회화화를 통한 해학성 [Ex. 중장]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임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마에 손을 짚고 오는가 가는가 건넛산 바라보니 거뭇회끗 서 있거늘 저야 임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걸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열사흔날 값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히도 날 속여거다

모쪼록 밤이기 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괘라

이 작품은 입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장황한 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이전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신흙의 방옹시여에서 ‘착각 모티프’가 사용된 바 있다. 방옹시여와 달리 이 작품은 과장을 심하게 하고 사람 자체가 가벼워 보이도록 회화화하여 전체적으로 경박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해학성을 얻었다. 이전 규범에서 강조하던 경건함과 절제의 미덕이 조선 후기에는 부정됨을 알 수 있는 사설시조이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에는 입을 기다리는 조바심이 장황한 수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입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은근하게 그려 냈던 전통과는 다르게 이 노래는 부박(浮薄)해 보이는 범속한 행위를 낱말이 그려 냄으로써 상황적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다. 더욱이 중장에서는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의 정서마저 회화화된 표현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인간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조선 전기의 노래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사설 시조이다. 사설 시조의 특성상 환기하는 정서가 걱정적이고, 중장을 늘리는 형식의 파괴가 나타난다. 입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은근하게 그려 냈던 전통과는 다르게 이 노래는 고려가요처럼 사랑에 대한 개인의 내밀한 생각까지 모두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장의 ‘남 웃길 뻔하괘라’라는 자신에 대한 회화화도 사설 시조의 특징적인 시구라 할 수 있다.

수능특강 250p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들만 여겨 두고 또 두고 먹고 놀 줄 모르는고
 먹고 놀 줄 모르거던 죽을 줄 알라마는 석숭(石崇)이 죽어 갈 적 누거만재(累巨萬財) 가져가며 유령(劉伶)의 무덤 위에 어느 술이 이르렀더니
 하물며 청춘 일장몽(一場夢)에 백화난만(百花爛漫)하니 이 같이 좋은 때에 아니 놀고 어이하리
 - 작자 미상, 「세상 사람들이~」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향락주의적 인생관

- ❶ 고사의 인용[Ex. 석숭, 유령]
- ❷ 설의법
- ❸ 시적 대상에 대한 비난적 어조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들만 여겨 두고 또 두고 먹고 놀 줄 모르는고
 먹고 놀 줄 모르거던 죽을 줄 알라마는 석숭(石崇)이 죽어 갈 적 누거만재(累巨萬財) 가져가며 유령(劉伶)의 무덤 위에 어느 술이 이르렀더니
 하물며 청춘 일장몽(一場夢)에 백화난만(百花爛漫)하니 이 같이 좋은 때에 아니 놀고 어이하리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향락주의적 인생관이 담긴 사설시조이다. <초장>에서 화자는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비판한다. <중장>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이름난 부자인 석숭과 전설적인 애주가인 유령, 이 두 인물을 근거로 하며 인생무상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을 향한 비난과 안타까움이 공존한다. 이는 조선 후기 화폐 경제의 활성화와 졸부(狝富)의 대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장>에서 화자는 이러한 세대에 '올로'를 주장하며 놀 것을 권유하며 마무리한다. 조선 후기의 문학적 세속화와 역동적인 가치관 변동이 두드러지는 작품이어서 조선 문학이라고 모두 딱딱한 작품만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라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C]에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이름난 거부(巨富)인 석숭과 전설적인 애주가인 유령, 이 두 인물을 근거로 하여 인생무상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적 대상을 향한 비난의 어조가 은근하게 이어지는데, 그 대상이 '먹고 놀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어서 결국에는 화자 자신이 향락주의에 경도된 범속한 인간임을 드러내게 된다. 이 역시 조선 후기 문학에서 새롭게 출현한 문학적 경향의 일단이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작가의 향락주의적 인생관을 드러낸 사설 시조이다. 화자는 고사를 인용하여 인생무상을 설파하며 그러한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한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자유지만, 이러한 당대 사람들이 용인할 수 없는 가치관을 비난의 어조를 섞어 표현한다는 것은 되려 자신의 나태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능특강 253p 한숨아 세한숨아~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고미장지* 세살장지* 가로단이 여닫이에 암돌찌귀 수돌찌귀
 배목걸쇠 똑닥 박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병풍
 (屏風)이라 덜걱 접은 죽자(簍子)이라 데데굴 만다 네 어느 틈
 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 작자 미상, 「한숨아 세한숨아~」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깊은 근심과 걱정

- ❶ 과장법
- ❷ 열거법
- ❸ 해학적 표현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느 틈으로 드러온다
 고미장지* 세살장지* 가로단이 여닫이에 암돌찌귀 수돌찌귀
 배목걸쇠 똑닥 박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병풍
 (屏風)이라 덜걱 접은 죽자(簍子)이라 데데굴 만다 네 어느 틈
 으로 드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작품의 묘미는 과장에 의한 해학에 있다. 화자는 시름이 많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문으로 막고 자물쇠 가득 채워 막았는데도 한숨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부정적인 현실을 막기 위한 노력이 수다스럽고 과장되게 열거되었기 때문에 시름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해학적인 작품이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깊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실시조이다. 한숨은 마음에 맺힌 것이 있을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한숨을 마치 바람이나 다른 무엇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잠금 장치를 사용하여 한숨을 막으려고 한다. 중장에서 다양한 잠금 장치를 길게 나열하면서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진지하게 시도하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슬픔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한국 민중 문학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에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현실의 시름과 해학으로 견뎌 내려는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삶의 고뇌와 시름을 청각적으로 형상화한 ‘한숨’을 의인화하여 작중 청자로 설정한 점이 독특하며, ‘한숨’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어디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냐고 묻는 화자의 모습에서, 당시 서민들이 겪어야 했던 힘겨운 삶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온갖 장치문의 종류와 그 부속품들을 일일이 열거하고는 문을 닫아걸고 거기에 온갖 장애물까지 덧댔다는 중장의 표현에서 그런 해학미를 느낄 수 있다.

시름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경향은 조선 후기 평민 문학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는 시름을 막아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삶의 고통과 비애를 피할 수 없었던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실적인 노력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때, 결국 삶의 시름은 웃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장치문의 온갖 종류와 돌찌귀 등의 부속품들을 열거한 이 작품의 중장은 다른 사실 시조 ‘窓(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의 중장과 상당 부분 똑같은데, 이는 사실 시조가 유동 문학(流動文學)이자 적층 문학(積層文學)으로서 작품 간의 활발한 상호 교섭을 거쳐 왔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수능특강 253p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푹 끊어지었거늘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흠뻑며* 감빨아*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두 끝 마주 잡아 비부
 쳐* 이르리라 저 모시를
 우리도 사랑 끊어져 갈 제 모시같이 이르리라
 - 작자 미상,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임과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 ❶ 도치법
- ❷ 사자성어
- ❸ 감각적 이미지의 구체적 형상화
- ❹ 유추적 사고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푹 끊어지었거늘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흠뻑며* 감빨아*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두 끝 마주 잡아 비부
 쳐* 이르리라 저 모시를
 우리도 사랑 끊어져 갈 제 모시같이 이르리라

이 작품은 사랑을 옷감 모시에 빗대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초장>과 <중장>에서 모시를 감다가 끊어지자 다시 잇는 작업을 나열하는 데 <중장>에서 우리 사랑도 이처럼 끊어질 위기가 있더라도 잘 극복하여 이어가자는 화자의 다짐을 담고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모시 삼기라는 여성의 노동을 소재로 사용해 임과의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여성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임과의 사랑을 모시실에 빗대어 모시실이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있듯이 임과의 사랑도 끊어지면 다시 잇겠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사랑을 향한 적극적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여성의 노동을 소재로 임과의 사랑을 지속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는 작품이다. 임과의 사랑을 실에 비유했으며, 끊어지면 다시 잇겠다는 화자의 모습은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실 시조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한 <정석가>와 연결지어 감상해도 좋을 것이다.

수능특강 253p 시어머님 며늘아기 나빠~

시어머님 며늘아기 나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받은 며느린가 값에 쳐 온 며느린가 밤나무 썩은 등걸
 에 휘초리*나 같이 알살피신* 시아버님 별편 쇠똥같이 되종고
 신* 시어머님 삼 년(三年) 걸은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뽕죽
 하신 시누이님 당피* 간 밭에 돌피* 난 것같이 셋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건* 밭에 메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 하시는고
 - 작자 미상, 「시어머님 며늘아기 나빠~」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시집살이의 고충

- ① 열거법
- ② 일상생활의 소재를 사용한 비유[Ex. 썩은 등걸의 휘초리, 별 편 쇠똥, 망태에 새 송곳 부리, 셋노란 외꽃, 기름진 밭의 메꽃]
- ③ 시어 간 대비와 대립적 구도[Ex. 시댁 식구와 며느리]
- ④ 대상의 희화화를 통한 풍자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시어머님 며늘아기 나빠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오
 빛에 받은 며느린가 값에 쳐 온 며느린가 밤나무 썩은 등걸
 에 휘초리*나 같이 알살피신* 시아버님 별편 쇠똥같이 되종고
 신* 시어머님 삼 년(三年) 걸은 망태에 새 송곳 부리같이 뽕죽
 하신 시누이님 당피* 간 밭에 돌피* 난 것같이 셋노란 외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건* 밭에 메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 하시는고

이 작품은 화자의 고된 시집살이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초장>에서 화자는 며느리인 자신에게 바닥을 구르며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 부탁하고 있다.
 <중장>에서 화자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외양을 희화화하고 있다.
 <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시댁 식구들을 희화화하면서 마무리한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대가족 제도에서 겪는 며느리의 맏고 고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일상적인 소재를 동원하여 소박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실시조이다. 농촌의 실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동원한 비유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왜곡된 가정생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해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에는 풍자와 해학이 한데 얽혀 있다. 시집 식구들의 해학적인 모습을 통해 봉건적으로 왜곡된 가정 생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풍자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 시조는 농촌의 대가족 제도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한탄하는 며느리의 노래이다. 생활과 밀착된 소재를 통해 비유적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수능특강 253p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잔밑고도* 알미위라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밥 뛰어* 간다 가로* 뛰어
 가시고 어허 내 서방(書房) 삼고라자
 진실(眞實)로 내 서방 못 될진데 벗의 님이나 되고라자
 - 작자 미상,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매력적인 남성에 대한 적극적 호감

- ① 행동의 나열[사설시조 전반의 특징]
- ② 색채어의 활용[Ex. 흰옷]
- ③ 정서의 직설적 표현[Ex. 잔밑고도 알미위라]
- ④ 동적 이미지
- ⑤ 소망의 표현[Ex. 벗의 님이나 되고라자]
- ⑥ 대상을 관찰함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저 건너 흰옷 입은 사람 잔밑고도* 알미위라
 작은 돌다리 건너 큰 돌다리 넘어 밥 뛰어* 간다 가로* 뛰어
 가시고 어허 내 서방(書房) 삼고라자
 진실(眞實)로 내 서방 못 될진데 벗의 님이나 되고라자

이 작품은 매력적인 남성에 대한 적극적인 호감을 진솔하게 담은 작품이다.
 <초장>에서는 화자가 느낀 호감을 알미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화자가 호감을 느낀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신의 서방으로 삼고 싶다면 욕망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만일 자기의 남편이 될 수 없다면 벗의 남편이 되어서라도 곁에 두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조선 후기의 가치관이 이전과 상당히 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과 상당히 유사함을 포착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젊은 남성의 활기찬 모습에 매혹된 여성의 심정과 이성을 향한 마음이 솔직하게 표현된 사설시조이다. 작중 여성 화자는 우연히 흰옷 입은 젊은 남성이 성큼성큼 돌다리를 건너는 활달한 모습에 반하여 그를 자기 서방으로 삼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서방이 될 수 없다면 친구의 임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남성을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설시조에서 여성 화자는 기존의 시조에 서와 달리 남성의 애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객체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능동적으로 생성·주도해 나가는 주체적 존재로 그려진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사랑에 빠진 여성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시조이다. 양반 사대부들의 점잖고 우아한 평시조와 달리 삶의 역동성과 감정의 진솔함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사설 시조의 특징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임에 대한 사랑과 임의 친구와 결혼해서라도 임과 가까이 있겠다는 파격적인 표현으로 사랑의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능특강 270p 오륜가(五倫歌)

중요도: A

아버이 자식(子息) 스이 하늘 삼긴 지친(至親)이라
부모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오조(烏鳥)도 반포(反哺)*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제1수>

임금을 섬기오되 정(正)한 길로 인도(引導)하여
국궁진체(鞠躬盡瘁)하여 죽은 후(後)에 말아스라
가다가 불합(不洽)곳하면 물러간들 어떠리

<제2수>

부부(夫婦)라 하온 것이 남으로 되어 있어
여고금슬(如鼓琴瑟)하면 괴 아니 즐거우냐
그렇고 공경(恭敬)곳 아니면 즉동금수(卽同禽獸) 하리라

<제3수>

형제(兄弟) 두 몸이나 일기(一氣)로 눈화시니
인간(人間)의 귀(貴)흔 거시 이 외(外)에 또 잇는가
잡 주고 못 어들 거슨 이뿐인가 흐노라

<제4수>

벗을 사귀오디 처음의 삼가하여
날도곤 나으 니로 굴히여 사귀여라
종시(終始)히 신의(信義)를 덕회여 구이경지(久而敬之)*하여
라

<제5수>

- 김상용, 「오륜가(五倫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오륜의 실천 강조

- ① 명령형 어조
- ② 설의법
- ③ 유교적 덕목을 소재로 한다.
- ④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 인간의 귀흔 거시 이 외에 또 잇는가]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아버이 자식(子息) 스이 하늘 삼긴 지친(至親)이라
부모곳 아니면 이 몸이 이실소냐
오조(烏鳥)도 반포(反哺)*를 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제1수>

<오륜가>는 제목처럼 유교의 덕목인 오륜과 관련된 작품이다. 오륜이란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인 부자간의 도리, 군신 간의 도리, 부부간의 도리, 어른과 아이 사이의 도리, 친구 간의 도리를 이른다.

<제1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말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이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로 부모가 아니면 자신이 없음을 설의법을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중장에 까마귀의 효심인 반포지효를 언급하며 짐승도 효도하니 사람의 효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임금을 섬기오되 정(正)한 길로 인도(引導)하여
국궁진체(鞠躬盡瘁)하여 죽은 후(後)에 말아스라
가다가 불합(不洽)곳하면 물러간들 어떠리
<제2수>

<제2수>는 군신간의 도리를 말한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면서도 마냥 따르지만 말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 말하고 있다.

<중장>의 국궁진체는 '말로 공경하고 조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씀'의 뜻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중장>의 '안 맞으면 물러간다'는 화자의 태도는 다소 모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을 향한 화자의 충심은 변함이 없기에 자신의 가치관을 도저히 관철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부부(夫婦)라 하온 것이 남으로 되어 있어
여고금슬(如鼓琴瑟)하면 괴 아니 즐거우냐
그렇고 공경(恭敬)곳 아니면 즉동금수(卽同禽獸) 하리라
<제3수>

<제3수>는 부부간의 도리를 다룬다. 부부는 본래 모르는 사람의 결합이지만 서로 화락하면 부부의 삶이 즐거울 것이다. 이때 화자가 당부한 점은 서로 간의 신의와 공경을 지키라는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였다.

형제(兄弟) 두 몸이나 일기(一氣)로 눈화시니
인간(人間)의 귀(貴)흔 거시 이 외(外)에 또 잇는가
잡 주고 못 어들 거슨 이뿐인가 흐노라

<제4수>

<제4수>는 형제간의 도리를 다룬다. 형제는 몸은 다르지만 한 부모에서 나왔기에 그사이에는 귀한 것이니 값을 치르기 어려울 만큼 소중하다는 말을 역설한다.

벗을 사귀오디 처음의 삼가흐야
날도곤 나으 니로 굴히여 사귀여라
종시(終始)히 신의(信義)를 덕회여 구이경지(久而敬之)*흐여
라
<제5수>

<제5수>는 친구 간의 도리를 다룬다. 화자는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것, 나보다 어진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친구 사이의 신의, 공경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만큼 친구 사이에 예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유학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리, 즉 오륜(五倫)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해 지은 연시조이다. 직설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조선 중기에 김상헌이 지은 연시조이다. 모두 5수로 1장은 부모에 효도할 것을, 2장은 임금을 바르게 섬길 것을, 3장은 부부간에 공경할 것을, 4장은 형제간에 한 기운으로 태어난 것을, 5장은 벗과 사귄데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을 주제로 담고 있다. 오륜가 계열 중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서정성보다 교훈성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수능특강 283p 동짓달 지나긴 밤을~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 황진이, 「동짓달 지나긴 밤을~」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입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기다림

- ① 음성 상징어 [Ex. '구비구비']
- ②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Ex. 시간을 천에 비유]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이 작품의 화자는 입과 헤어진 상황에서 입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가 두드러지는 작품인데 시간을 천에 비유한 것이 인상적이다.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어'에서 시간의 한 부분을 베어내어 '봄'이라는 이불 밑에 넣어놨다가 그리운 입을 만나면 꺼낸다는 발상은 입과 떨어져 있는 부정적 시간은 줄이고 그 시간을 입을 만났을 때 써서 입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담은 표현이다. 다만, 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의 화자는 입과 헤어진 상황에서 입을 그리워하며 간절하게 재회를 바라고 있다.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음성상징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등의 기법을 통해 입에 대한 애틋한 기다림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어 조선 전기 시조 중 연정가(戀情歌)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입이 부재하는 동짓달 밤이라는 부정적 시간을 단축하여 긍정적 시간인 입이 오는 날 밤을 연장하겠다는 참신한 발상이 돋보인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입과의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한 시조이다. 이 작품은 발상의 참신함으로 유명하다. '밤의 허리', '춘풍 이불' 등의 기발한 비유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기발한 표현력은 황진이의 문학성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서리서리와 굵이굵이' 등의 의태어를 활용한 대조기법도 주목할 만하다.

수능특강 283p 바람에 휘엿노라~

바람에 휘엿노라 굽은 솔 웃지 마라
 춘풍(春風)에 피은 꽃이 매양에 고아시라*
 풍표표(風飄飄) 설분분(雪紛紛)*할 제 네야 나를 부르리라*
 - 인평 대군, 「바람에 휘엿노라~」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소나무의 지조와 절개 예찬

- ❶ 자연과 인간의 대비
- ❷ 설의법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바람에 휘엿노라 굽은 솔 웃지 마라
 춘풍(春風)에 피은 꽃이 매양에 고아시라*
 풍표표(風飄飄) 설분분(雪紛紛)*할 제 네야 나를 부르리라*

이 작품은 높은 절개와 굽은 지조로 상징되는 소나무의 덕목을 인간의 윤리적인 규범에 조응시켜 우의적으로 표현한 시조이다.
 <초장>에서 화자는 바람 때문에 굽은 소나무를 비웃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금지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봄에 핀 꽃은 일시적으로 화려할 뿐 언제나 아름답지는 않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매양 고아시라'로 설의법을 사용하여 작가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종장>의 '풍표표 설분분'은 바람이 불고 눈이 흩날린다는 뜻으로 삶의 시련을 의미한다. 시련이 닥쳤을 때도 늘 푸른 소나무는 봄꽃을 비롯한 모든 사람 동경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소나무의 특성을 빗대어 '세한고절'이라 한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높은 절개와 굽은 지조로 상징되는 소나무의 덕목을 인간의 윤리적인 규범에 조응시켜 우의적으로 읊은 시조이다. 초장에서 화자는 바람 때문에 굽은 소나무를 비웃는 못사람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 근거를 중장에서 제시한다. 춘풍에 피는 꽃은 일시적으로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눈바람이 몰아치는 혹심한 시절이 오면 그 꽃은 사라지고 소나무만이 푸름을 지키기 때문이다. 세찬 눈바람에도 푸름을 지키기 위해 소나무는 꺾이지 않고 휘어졌던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이 중장에 담겨 있다. 중장에서 화자는 눈바람 치는 험난한 시절이 되면 봄꽃이 굽은 소나무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즉 굽은 소나무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인 인평 대군은 인조의 셋째 아들로써 병자호란 때 인조를 남한산성까지 호위한 인물이며, 두 형인 소현 세자, 봉림 대군과 함께 중국 심양에 볼모로 끌려갔다 돌아오기도 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소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는 시조이다. 소나무가 지닌 생태를 윤리적 규범과 연결지어 우의적으로 풀어내었다. 이렇듯 사대부에게 자연은 늘 배움의 대상이자 삶의 모범이었다. 스스로 때를 맞춰 움직이고 피고 지며 제 자리를 지킨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나랏일이 이렇게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책임감은 늘 인간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만드는데, 이와 대비되는 자연은 늘 유한하고 약한 인간에게 가르침을 준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자연물들을 부르는 사자성어를 가르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 Ex. 세한삼우(歲寒三友)=세한고절: 추운 겨울의 세 가지 벗,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

수능특강 283p 백구(白鷗)야 말 물어보자~

백구(白鷗)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명구승지(名區勝地)*를 어디어디 벌였더냐
 날더러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리라
 - 김천택, 「백구(白鷗)야 말 물어보자~」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

- ❶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자연친화적 태도를 드러냄
- ❷ 상징적 시어의 사용 [Ex. 백구(白鷗)는 동아시아 문학의 전통에서 무욕의 경지를 뜻하는 관습적 상징어이다.]
- ❸ 가정을 통한 소망의 피력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백구(白鷗)야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아스라
 명구승지(名區勝地)*를 어디어디 벌였더냐
 날더러 자세히 일러든 너와 게 가 놀리라

이 작품은 자연속에서 지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한 시조이다. 백구는 욕심 없는 존재의 상징이다. 이 작품에서도 세속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순수한 존재로 사용되고 있다.

<초장>에서 화자는 백구에게 말을 거는데 놀라지 말라며 달라고 있다. 백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중장>에서 화자는 백구에게 경치 좋은 곳을 물어본다.

<중장>에서 화자는 그 경치 좋은 곳에 같이 가서 놀자며 설레는 멘트를 던지고 있다. 그만큼 자연이 좋으시단 거다.

여기서 경치 좋은 곳은 세속 공간에 대립하는 아름다운 자연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지내려는 화자의 마음을 갈매기에 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갈매기에 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갈매기는 동양 문학에서 무욕, 깨끗한 마음을 상징한다. 이와 관련한 고사로 무욕하기로 소문난 한 청년의 주위에 늘 갈매기가 모여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들은 아버지가 갈매기 한 마리만 데려오라 하여 청년이 갈매기를 데리러 갔더니 갈매기가 모두 도망갔다고 한다. 갈매기의 하얀색을 무욕의 경지로 해석한 것이 먼저겠지만 이렇게 갈매기는 무욕을 상징한다. 화자는 그런 갈매기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무욕의 경지에 대한 동경과 지향을 드러내고 할 수 있다. 다만, 화자처럼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으면 갈매기가 다가올지는 의문이다.

수능특강 304p 북천가(北遷歌)

중요도: AA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과거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 하고
 오십에 등과하여 백수 흥진 무삼일꼬
 공명이 늦으나마 행세나 약바르지
 무단히 내달아서 소인의 적이 되어
 부월을 무릅쓰고 천문에 상소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도 옳건마는
 요요한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이라
 소 한 장 오르면서 만조가 울격한다
 어와 황송할사 천위가 진노하사
 삭탈관직 하시면서 엄치하고 꾸중하니
 운박한 이 신명이 고원으로 돌아갈새
 추풍에 배를 타고 강호로 향하다가
 남수찬 상소 끝에 명천정배 놀랍도다
 창망한 행색으로 동문에서 대죄하니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이 이천리라
 두루막에 흰 띠 띄고 북천을 향해서니
 사고무친 고독단신 죽는 줄 그 뉘 알리
 사람마다 당케 되면 울음이 나련마는
 군은을 갓으리라 쾌함도 쾌할시고
 인신이 되었다가 소인의 참소 입어
 엄지를 봉송하여 절역으로 가는 사람
 천고에 몇몇이며 아조에 그 뉘련고
 칼짚고 일어서서 술 먹고 노래하니
 이천리 적객이라 장부도 다 울시고
 좋은 듯이 말을 하니 명천이 어디맨가
 더위는 홀로 같고 장마는 극악한데
 나장이 뒤에 서고 청노는 앞에 두고
 익경원 내달아서 다락원 잠간 쉬어
 축성령 넘어가니 북천이 멀어간다
 슬프다 이내몸이 영주각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을 뵈시다가
 일조에 정을 떼고 천애로 가겠구나
 구중을 침망하니 운연이 아득하고
 종남은 아아하여 몽상에 막연하다
 밥 먹으면 길을 가고 잠을 깨면 길을 떠나
 물 건너고 재를 넘어 십리 가고 백리 가니
 양주땅 지난 후에 포천읍 길가이고
 철원 지정 밟은 후에 정평읍 건너 보며
 금화금성 지난 후는 회양읍 막죽이라
 강원도 북관길이 듣기 보기 같으구라
 회양서 중화하고 철령을 향해 가니
 천험한 청산이요 축도 같은 길이로다
 요란한 운무중에 일색이 끝이 난다
 남여를 잡아 타고 철령을 넘는구나

수목이 울밀하여 엎어지락 자빠지락
 중허리에 못올라서 황혼이 거의로다
 상상봉 올라서니 초경이 되었구나
 일행이 허기져서 기장떡 사먹으니
 떡맛이 이상하여 향기롭고 아름답다
 햇불을 신칙하여 화광중에 내려가니
 남북을 몰랐으니 산형을 어이 알리
 삼경에 산을 내려 탁막에 잠을 자고
 새벽에 떠나서서 안변읍 어디매노
 할일 없는 내 신세야 북도적객 되었구나
 함경도는 초면이요 아태조 고토로다
 산천이 광활하고 수목이 만야한데
 안변읍 들어가니 본관이 나오면서
 포진병장 신칙하고 공식을 공궤하니
 시원케 잠을 자고 북향하여 떠나가니
 원산이 여기런가 인가도 굉장하다
 바다 소리 요란한데 물화도 장할시고
 덕원읍 중화하고 문천읍 숙소하고
 영흥읍 들어가니 웅장하고 가려하다
 태조대왕 태지로서 총총 가거뿐이로다
 금수산천 그림 중에 바다 같은 관새로다
 선관이 즉시 나와 위로하고 관대하며
 점심상 보낸 후에 채병화연 등대하니
 죄명이 몸에 있어 치하고 환송한 후
 고원읍 들어가니 본수령 오공신은
 세의가 자별키로 날 보고 반겨 하네
 천대객지 날 반길이 이 어른뿐이로다
 책방에 맞아들여 음식을 공궤하며
 위로하고 다정하니 객회를 잊겠구나
 북마 주고 사령 주고 행자 주고 의복 주니
 잔음행세 생각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능신하고 발행하니 운수도 고이하다
 갈 길이 몇 천리며 온 길이 몇 천린고
 하늘 같은 저 철령은 향국을 막아 있고
 저승같은 귀문관은 울연히 쉬였구나
 표풍 같은 이내 몸이 지향이 어디매노
 초원역 중화하고 함흥 감영 들어가니
 만세교 긴 다리는 십리를 뻗어있고
 무변대에 창망하여 대야를 들러 있고
 장강은 도도하여 만고에 흘렀구나
 구름 같은 성첩보소 낙빈루 높고 높다
 만인가 저녁연기 추강에 그림이요
 서산에 지는 해는 원객이 시름이다
 술 잡고 누에 올라 칼 만지며 노래하니
 무심한 뜬 구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의한 강적 소리 객회를 더쳤세라
 사향한 이내 눈물 장강에 던져 두고
 백청루 내려와서 성내에서 잠을 자니
 서울은 팔백리요 명천은 백구리라

비 맞고 유삼 쓰고 함관령 넘어가니
영태도 높거니와 수목도 더욱 장타
남여는 날아가고 대로는 설였구나
노변에 섰는 비석 비각단청 요조하다
태조대왕 소시절에 고려국 장수되어
말갈에 전승하고 공덕이 어제 같다
역말을 갈아 타고 흥원읍 들어가니
무변해색 들렀는데 읍양이 절묘하다
중화하고 떠나 서니 평포역 숙소로다
내 온 길 생각하니 처만리 되었구나
실 같은 목숨이요 거미 같은 근력이라
천천히 길을 가면 살고서 볼 것인데
엄지를 피셨으니 일신들 지체하라
죽리를 가라시고 수화를 불분하니
만신에 땀이 돌아 성중 지경 되었구나
골수에 든 더위는 자고 새면 설사로다
나장이 하는 말이 나오리 거동 보소
엄엄하신 기력이요 위태하신 신관이라
하루만 조리하여 북청읍에 목사이다
무식하다네 말이야 엄지 중일신이라
생사를 생각하라 일시를 유체하라
사람이 죽고 살기 하늘에 달렸으니
네 말이 기특하나 가다가 보자꾸나
북청서 유소하고 남송정 돌아드니
무변대해 망망하여 동천이 가이 없다
만산은 첩첩하여 남향이 아득하다
마곡역 중화하고 마천령 다다르니
안밖재 육십리라 하늘에 맞닿았고
공중에 걸린 길은 참바같이 설였구나
달래덤불 엮혔으니 천일이 밤중 같고
층암이 위태하니 머리 위에 떨어질 듯
하늘인가 땅이런가 이승인가 저승인가
상상봉 올라서니 보이는 게 바다이고 넓은 것이 바다이다
몇 날을 길에 있어 이 재를 넘었던고
이 영을 넘은 후에 고향 생각 다시 없네
천일만 은근하여 두상에 비쳤구나
원평읍 중화하고 길주읍 들어가니
성곽도 장커니와 여염이 더욱 좋다
비울 바람 일어나니 떠날 길이 아득하다
읍내서 목자하니 본관폐 불안하다
원 나오고 책방 오니 초면이 친구 같다
음식은 먹거니와 포진 기생 불관하다
엄지를 피셨으니 꽃자리 불관하고
죄명을 가졌으니 기생이 호화롭다
운박하운 신명 보면 분상하는 상주로다
기생을 물리치고 금연을 걸어내니
본관이 하는 말이 영남양반 고집이라
모우하고 떠나 서니 명천이 육십리라
이 땅을 생각하면 목특의 고토로다

황사의 일본도는 왕소군의 천총이요
팔십리 광연못은 소부의 만양도다
회흥동 이릉피는 지금의 원역이요
백용해 때문관은 앞재 같고 뒷피 같다
고참역마 잡아타고 배소를 들어가니
인민은 번성하고 성곽은 웅장하다
여각에 들어앉아 패문을 붙인 후에
맹동원의 집을 물어 본관더러 선하니
본관 전갈하고 공형이 나오면서
병풍 자리 주물상을 주인으로 대령하고
육각 소리 앞세우고 주인으로 나와 앉아
처소에 전갈하여 피셔오라 전갈하네
슬프다 내 일이야 꿈에나 들었던가
이곳이 어디매냐 주인의 집 찾아 가니
높은대문 넓은사랑 삼천석군 집이로다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교리의 이번 정배
죄없이 오는 줄을 북관 수령 아는 바요
만인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사이다
삼형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노잣구나
호반의 규모런가 활협도 장하도다
그러나 내 일신이 귀적한 사람이라
화광빈객 꽃자리에 기락이 무엇이나
규문에 퇴송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성내의 선비들이 문풍하고 모여들어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인 되었구나
책 끼고 청학하니 글재 내고 고쳐지라
북관에 있는 수령 관장만 보았다가
문관의 풍성 듣고 한사하고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양한들 모면할 길 전혀 없네
주야로 끼고 있어 세월이 글이로다
한가하면 풍월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절세의 고종이라 시주에 회포 붙여
불출문의 하오면서 편케편케 날 보내니
춘풍에 놀란 꿈이 변산에 서리 온다
남천을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 보니 오랑캐 지경이라
개가죽 상하착은 상놈들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기민의 조석이라
본관의 성덕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실 같은 이내 목숨 달반을 걸렸더니
천만의외 가신 오며 명독이 왔단 말가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 되었구나
절세에 있던 사람 향간에 돌아온 듯
나도나도 이럴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서봉을 떼어 보니 정찰이 몇 장이고
폭폭이 친척이요 면면이 가향이라
지면의 자자획획 자질의 눈물이요

옷 위의 그림 빛은 아내의 눈물이다
 소동과 초운인가 양대운우 불쌍하다
 그중에 사람 죽어 돈몰이 되단 말까
 명녹이 대코 앓아 눈물로 문답하니
 집떠난지 오래거든 그후 일을 어이 알리
 만수천산 멀고먼데 네 어찌 돌아가며
 덤덤히 쌓인 회포 다 이룰 수 없겠구나
 녹아 말들어라 무사히 돌아가서
 우리집 사람더러 살았더라 전하여라
 죄명이 가벼우니 은명이 쉬우리라
 거연히 추석이라 가까이 성묘하네
 우리 곳 사람들도 소분을 하나니라
 본관이 흐는 마리 이곳의 칠보산은
 북관 중 명승지(名勝地)라 금강산과 갖치 치니
 칠보산 한번 가서 방슈심산(訪水尋山) 엇더흔고
 나도 역시 조커니와 의리에 난처하다
 원지(遠地)에 쫓긴 몸이 형승의 노는 일이
 분의*에 미안하고 침령(瞻聆)*의 괴이(怪異)하니
 막음의 조컨마는 못 가기로 작정하니
 주슈(主首)의 흐는 마리 그러치 아니하다
 악양루 황강경(黃岡景)은 왕등의 스적이오*
 적벽강 제적(在謫) 놀음 구소의 풍정이니
 김학스 칠보산의 무슨 힘이 잇스리오
 그 말을 반겨 듯고 황연이 이러느셔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 드러가니
 구름 갓흔 천만 봉이 화도강산 광경이라
 박달령 넘어가서 금장동 들어가니
 곳곳의 물소리는 백옥을 깨쳐 있고
 봉봉의 단풍 빛은금수장을 들렀세라
 남여를 높이 타고 개심사에 들어가니
 원산은 그림이오 근봉은 물형이라
 육십명 선비들이 앞서고 뒤에 서니
 풍경도 좋거니와 광경이 더욱 장타
 창망한 지난 회포 개심사에 들어가서
 밤 한 경 새운 후에 미경에 일어나서
 소쇄하고 물을 여니 기생들이 앞에 와서
 현신하고 하는 말이 본관사도 분부하되
 김교리님 칠보산에 너 없이 놀음 되랴
 당신은 사양하되 내 도리에 그럴소냐
 산신도 섭섭하고 원학도 슬프리라
 너희들을 송거하니 나으린들 어찌하랴
 부디부디 조심하고 칠보청산 거행하다
 사도의 분부 끝에 소녀들이 대령하오
 우습고 부끄럽다 본관의 정성이여
 풍류남자 시주객은 남관에 나뿐인데
 신선의 곳에 와서 너를 어찌 보내리오
 이왕에 너희들이 칠십리를 등대하니
 풍류남자 방탕성이 매몰하기 어려왜랴
 방으로 들라하여 이름 묻고 나 물으니

한 년은 매향인데 방년이 십팔이요
 하나는 군산월이 십구세 꽃이로다
 화상 불러 음식 하고 노래시켜 들어보니
 매향의 평우조는 운우가 흠어지고
 군산월의 해금소리 만학청봉 푸르도다
 지로승 앞세우고 두 기생 옆에 끼고
 연화만곡 깊은 곳에 올라가니
 단풍은 비단이요 송성은 거문고라
 상상봉 노적봉과 만사암 천불암과
 탁자봉 주작봉은 그림으로 둘러지고 물형으로 높고 높다
 아양곡 한 곡조를 두 기생 불러내니
 만산이 더 높고 단풍이 더 붉도다
 옥수로 양금 치니 송풍인가 물소리가
 군사월의 손길 보소 곱고도 고을시고
 춘산에 풀손인가 안동밭골 금량인가
 양금 위에 노는 손이 보드랍고 알스럽다
 남녀 타고 전향하여 한 마루 올라가니
 아까 보던 산모양이 홀지에 환영하여
 모난 불이 둥그렁고 회던 바위 푸르구나
 절벽에 새긴 이름 만조정 물색이라
 산을 안고 들어가니 방선암이 여기로다
 기암괴석 첩첩하니 갈수록 황홀할사
 일리를 들어가니 금강굴 이상하다
 차아한 높은 굴이 석색창태 새로워라
 연적봉 구경하고 회상대 향하다가
 두 기생 간 데 없어 찾느라 골몰터니
 어디서 일성가곡 중천으로 일어나니
 놀라서 바라보니 회상대 올라 앉아
 일지단풍 꺾어 쥐고 녹의홍상 고은 몸이
 만장암 구름 위에 사람을 놀렷시고
 어와 기절하다
 이 몸이 이른 고지 신선의 지경(地境)이라
 전성의 연분으로 경구(經句)의 자취(自取)하여
 바람의 붓친 다시 이 광경 보깃고나
 연적봉 지는 후(後)의 선녀를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회는 청천(靑天)의 소스 잇고
 비바회 서책봉(書冊峯)은 안전의 버러 잇고
 신향봉 보슬봉은 신선의 굴혈이라
 미향은 술을 들고 만장운 한 곡조요
 군산월 안즌 거동(舉動) 아조 분명 쫓치로다
 오동 북관 거문고의 금스로 줄을 메와
 더쪽으로 타는 양이 거동도 곱거니와
 섬섬(纖纖)한 손길 싹히 오식이 영농하다
 네 거동 보고 느니 군명(君命)이 엄(嚴)하여도 반홀 번 흐깃고나
 영웅절스(英雄節士) 업단 말은 사칙(史冊)에 잇는니라
 니 마암 단단하니 네게야 큰말하라
 본 거시 큰 병(病)이요 안 본 거시 약(藥)이런가
 이천 리 절식(絶塞) 중의 단정이 몸 가지고
 거적(居謫)을 잘흔 거시 아조 모도 네 덕(德)이라

양금을 파흔 후의 절집의 느려오니
 산승(山僧)의 촌물 보소 정결하고 향기 있다
 이튿날 도라오니 호상대 노든 일이
 전성인가 몽중인가 국은(國恩)인가 천은(天恩)인가
 천애(天涯)에 이 헝긋이 이럴 줄 아라던가
 흥진하여 도라와서 슈노(首奴)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지는 본관이 보니기로
 기성을 다려스나 도라와 생각하니 호화한중(豪華閑中) 불안하다
 다시는 지휘하여 기성이 못 오리라
 선비만 다리고서 시주(詩酒)의 기록하니
 청산이 그림 되야 술존의 썩러지고
 녹슈는 기리 되야 조희 우희 단청이라
 군산월의 녹의홍상(綠衣紅裳) 찢어고나 씌이로다
 일월이 언제던고 구월구일 오늘이라
 광한림 이적선은 용산에 높이 쉬고
 조선의 김학사는 재덕산에 올랐구나
 백주향화 앞에 놓고 남향을 상상하니
 북병산 단풍경은 김학사 차지요
 이하의 황국화는 주인이 없었구나
 파리한 늙은 아내 술을 들고 슬프던가
 추월이 낮 같으니 조운의 회포로다
 칠보산 반한 늬이 소무굴 보려하고
 팔십리 경성땅에 구경차로 길을 떠나 창연히 들어가니
 북해상 대택중에 한가하고 외로워라
 추강은 가 없는데 갈 꽃은 슬프도다
 창파는 망망하여 회색을 연하였고
 낙엽은 분분하여 청공에 나렸구나
 충신의 높은 자취 어디가서 찾아보라
 어와 거룩할사 소중량 거룩할사
 나도 또한 이럴망정 주상님 멀리 떠나
 절역에 몸을 던져 회포도 슬프더니
 오늘날 이 섬위에 정성이 같았구나
 낙일에 칼을 잡고 후리쳐 돌아서니
 병산의 풍설중에 축도 같은 길이로다
 귀문관 돌아서니 음침하고 고이하다
 삼척을 드러서니 일신이 송구하다
 노방에 일본토는 왕소군의 천총인가
 처량한 어린 혼이 백야에 슬프도다
 춘풍에 한을 먹고 흥업을 올렸구나
 갱쟁한 환패 소리 월야에 우느니라
 술 한 잔 가뜩 부어 방혼을 위로하고
 유정으로 들어가니 명천음이 십리로다
 탄막에 들렀다가 경방자 달려드니
 무슨 기별 왔다던고 방환 기별 나렸도다
 천은이 망극하여 눈물이 망망하다
 문적을 손에 쥐고 남향하여 백배하니
 동행의 거동 보소 치하하고 거룩하다
 식전에 말을 달려 주인을 찾아가니
 만실이 경사로다 광경이 그지없다

죄명이 없었으니 평인이 되었구나
 천은을 덮어쓰고 양계를 다시 보니
 삼천리 고향 땅이 지척이 아니런가
 행장을 재촉할 제 군산월이 대령한다
 선연한 거동으로 웃으면서 치하하네
 나으리 해배하니 작히작히 감축할까
 칠보산 우리 인연 춘몽이 아득하다
 이날에 너를 보니 그것도 군은인가
 그렸다가 만난 정이 맛 나고도 향기롭다
 본관의 거동 보소 삼현육각 거느리고
 이곳을 나오면서 치하하고 손 잡으며
 김교린가 김학산가 성군의 은택인가
 나도 이리 감축커든 임자야 오죽할까
 흥문 교리 정든 사람 일시라 전케하라
 지금으로 제안하고 그 길로 나왔노라
 이다지 생각하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군산월을 다시 보니 새 사람 되었구나
 형극중에 씻긴 난초 옥분에 옮겼구나
 진애의 야광주가 박물군자 만났구나
 신평에 물힌 칼이 뒤를 보고 나왔더냐
 꽃다운 어린 자질 임자를 만났구나
 금병화축 깊은 밤에 광풍제월 달 밝은 날
 글 지으며 화답하고 술 가지면 동배하니
 정분도 깊거니와 호사도 그지없다
 시월에 말을 타고 고향을 찾아 가니
 본관의 성덕 보소 남북 짓고 종 보내며
 이백량 황재 내어 저 하나 따라주며
 거행에 하는 말이 되시고 잘 가거라
 나으리 유경시에 네게야 내외할까
 천리강산 대로중에 김학사 꽃이 되어
 비위를 맞추면서 좋게 좋게 잘 가거라
 승교를 앞세우고 풍류남자 뒤 따르니
 오던 길 넓고 넓어 귀흥이 그지 없다
 길주읍 들어가니 본관의 거행 보소
 금연화축 넓은 방에 기락이 가득하다
 군산월이 하나이다 풍정이 가득하다
 연연한 군산월이 금상첨화 되었구나
 신조에 발행하여 익병에 중화하고
 창해는 망망하여 동천에 그지없고
 병산은 중중하여 면면이 섭섭도다
 추풍에 채를 들고 성진을 들어가니
 북병사 마주 나와 두 군관 합석하니
 상읍관가 군병이오 길주 관청 흥안이라
 금축이 영롱한데 병사의 호강이라
 북관이 하는 말이 학사에 다린 사람
 얼굴이 기이하다 서울젠가 북도젠가
 청직인가 방자인가 이름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몇 살인고 손 보고 눈대보니
 남중일색 처음보네 웃으며 대답하되

봉도 아이 데려다가 밤중에 읊긴 후에 장가들어 살리겠소
 종적을 감추우고 풍악중에 앉았으니
 병사가 취한 후에 소리를 크게 하되
 김교리 청직이야 내곁에 이리 오라
 위령을 못하여서 공손히 나아드니
 손내 어라 다시 보자 어찌 그리 기이한고
 총모피 털토시에 옥수를 반만 내어
 덩석 드리 쥐라할제 빼치고 일어서니
 계집의 좁은 소견 미련코 매물하다
 사나이 모양으로 손달라면 손을 주고
 혼연하고 천연하면 위여위여 하련마는
 가뜩이 수상하여 치보고 내려보고
 군관이나 기생이나 면면이 보던 차에
 매물이 빠치는 양 제 버릇 없을소냐
 병사가 눈치 알고 몰랐노라 몰랐노라
 김학사의 아내신 줄 내 정영 몰랐구나
 만당이 대소하고 못 기생이 달려드니
 아까 섰던 남자몸이 계집통정 하겠구나
 양색단 두루막이 옥판 달아 애암쓰고
 꽃밭에 섞여 앉아 노래를 받아 주니
 청강의 옥동인가 화원의 범나비냐
 닭 울며 일출 구경 망양정 올라가니
 금촉에 꽃이 피고 옥호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동해를 건너보니
 일색이 오르면서 당홍바다 되는구나
 부상은 지척이오 일광은 술회로다
 대풍악 잡아 쥐고 태산을 굽어 보니
 부유 같은 이 내 몸이 성은도 망극하다
 북관을 몰랐다면 군산월이 어찌 올까
 병사를 이별하고 마천령 넘어간다
 구름 위에 길을 두고 남여로 올라가니
 군산월이 앞세우고 안전에 꽃이 피고
 군산월이 뒤세우면 후면에 선동이라
 단천에 중화하고 북청읍 숙소하니
 반야에 깊은 정은 금석 같은 언약이오
 태산 같은 인정이라 흥원에 중화하고
 영흥읍에 숙소하니 본관이 나와 보고 밥 보내고 관대하네
 고을도 크거니와 기악도 끔찍하다
 대풍악 파한 후에 행절이만 잡아두니
 행절이 거동보소 곱고도 고을시고
 청수부용 평신이오 운우양대 태도로다
 효두에 발행하여 고원을 들어가니
 주수의 반기는 양 내달아 손 잡으며 경사를 만났구나
 문천에 중화하고 원산장터 숙소하니
 명천이 천여리요 서울이 육백리라
 주막집 깊은 밤에 밤한경 새운 후에
 계명시에 소쇄하고 군산월을 깨워내니
 몽롱한 해당화가 이슬에 휘젓는 듯
 괴코도 아름답다 유정하고 무정하다

옛일을 이를 게니 네 잠간 들어봐라
 이전에 장대장이 제주목사 과만 후에
 정들었던 수청기생 버리고 나왔더니
 바다를 건는 후에 차마 잊지 못하여서
 배 잡고 다시 가서 기생을 불러내어
 비수 빼어 버린 후에 돌아와 대장 되고
 만고명인 되었으니 나 본래 문관이라
 무변과 다르기로 너를 도로 보내는 게 이것이 비수로다
 내 본래 영남 있어 선비의 졸한 몸이
 이천리 기생 신고 천고에 없는 호강
 끝나게 하였으니 험기하고 서울 가면
 분의에 황송하고 모양이 고약하다
 부디부디 잘 가거라 다시 볼 날 있으리라
 군산월이 거동보소 깜짝이 놀라면서
 원망으로 하는 말이 버릴 심사 계셨으면
 중간에 못하여서 어린 사람 호려다가
 사무친척 외론 곳에 계발몰어 던지시니 이런 일도 하나있가
 나으리 성덕으로 사랑이 배부르나
 나으리 무정키로 풍전낙화 되었구나
 오냐 오냐 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여
 십리만 가졌더니 천리나 되었구나
 저도 부모 있는 고로 원리한 심회로서
 웃으며 그리 하오 눈물로 그리 하오
 효색은 은은하고 추강은 명랑한데
 홍상에 눈물 내려 학사두발 희겠구나
 승교에 담아내어 저 먼저 회송하니
 천고에 악한 놈 나 하나 뿐이로다
 말 타고 돌아서니 이목에 삼삼하다
 남자의 간장인들 인정이 없을소냐
 이천리 장풍유를 일조에 놓쳤구나
 풍정도 잠간이라 흥진비래 되었구나
 안변원이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무정하오
 판관사도 무섭던가 남의 눈이 무섭던가
 장부의 헛된 간장 상하기 쉬우리라
 내 기생 봉선이를 남북시켜 앞세우고
 철령까지 동행하여 회포를 잊게 하소
 봉선이를 불러드려 따라가라 분부하니
 자색이 옥골이라 군산월이 고은 모양
 심중에 깊었으니 새날보고 잊을소냐
 풍설이 아득한데 북천을 다시 보니
 춘풍에 아는 꽃이 진흙에 구르다가
 추천의 외기러기 짝없이 가는 이라
 철령을 넘을 적에 봉선이를 하직하고
 에꾸준 이 내 몸이 하는 것이 이별이라
 조히 있고 잘 가거라 다시 어찌 못 만나랴
 남여로 내 녀으니 북도산천 끝이 난다
 서름도 지나가고 인정도 끝이 나고
 풍류는 끝나고 남은 것이 귀흥이라
 회양에 중화하고 금화 금성 지난 후에

영평읍 들어가서 철원을 밟은 후에
 포천읍 숙소하고 왕성이 어디때뇨 귀흥이 도도하다
 갈 적에 녹음방초 올 적에 풍설이오
 갈 적에 백의러니 올 적에 청포로다
 적객이 어제러니 영주학사 오늘이야
 술 먹고 마룻 타고 풍월도 절로 나고
 산 넘고 물 건너며 노래로 예 왔구나
 만사여생 이 몸이오 천고호걸 이 몸이라
 축성령 넘어가니 삼각산 반가워라
 중천에 솟았으니 귀흥이 높아 있고
 만수에 상화 피니 설상이 춘광이라
 삼각에 재배하고 다락원 들어가니
 관주인 마주 나와 우름으로 반길시고
 동대문 들어가니 성상님이 무강할사
 행장을 다시 차려 고향으로 가올 적에
 새재를 넘어서니 영남이 여기로다
 오천서 밤 새우고 가산에 들어오니
 일촌이 무양하여 이전 있던 행각이라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안에 드니
 애쓰던 늙은 아내 부끄러워 하는구나
 어여쁠사 수득 어미 군산월이 네 왔더냐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남북풍장 일장춘몽 깨었구나
 어와 김학사야 그릇타 한을 마라
 남자의 천고사업 다하고 왔느니라
 강호에 편케 누워 태평에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으리라
 글지어 기록하니 불러들 보신 후에
 후세에 남자되야 남자를 부러말고
 이 내 노릇 하게되면 그아니 상쾌할가

- 김진형, 「북천가(北遷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유배지에서의 풍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① 설의법

[Ex. 무슨 힘이 잇스리오, 네게야 큰말하랴, 흥식이 이럴 줄 아라
 던가]

② 대구법 [Ex. 본 거시 큰 병이요 안 본 거시 약이런가]

③ 적강(謫降) 모티프

[Ex. 전성의 연분으로 경구의 자취하여]

④ 공간의 이동[Ex. 양금을 파흔 후의 절집의 느려오니]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과거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 하고
 오십에 등과하여 백수 흥진 무삼일꼬
 공명이 늦으나마 행세나 약바르지
 무단히 내달아서 소인의 적이 되어
 부월을 무릅쓰고 천문에 상소하니
 이전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도 옳건마는
 요요한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이라
 소 한 장 오르면서 만조가 울컥한다
 어와 황송할사 천위가 진노하사
 삭탈관직 하시면서 엄치하고 꾸중하니
 운박한 이 신명이 고원으로 돌아갈새
 추풍에 배를 타고 강호로 향하다가
 남수찬 상소 끝에 명천정배 놀랍도다
 창망한 행색으로 동문에서 대죄하니
 고향은 적막하고 명천이 이천리라
 두루막에 흰 띠 띄고 북천을 향해서니
 사고무친 고독단신 죽는 줄 그 뉘 알리
 사람마다 당케 되면 울음이 나련마는
 군은을 갓으리라 쾌함도 쾌할시고
 인신이 되었다가 소인의 참소 입어
 엄지를 봉승하여 절역으로 가는 사람
 천고에 몇몇이며 아조에 그 뉘런고
 칼질고 일어서서 술 먹고 노래하니
 이천리 적객이라 장부도 다 울시고
 좋은 뜻이 말을 하니 명천이 어디맨가
 더위는 홀로 같고 장마는 극악한데
 나장이 뒤에 서고 청노는 앞에 두고
 익경원 내달아서 다락원 잠간 쉬어
 축성령 넘어가니 북천이 멀어간다
 슬프다 이내몸이 영주각 신선으로
 나날이 책을 끼고 천안을 뵈시다가
 일조에 정을 떼고 천애로 가겠구나
 구중을 첨망하니 운연이 아득하고
 종남은 아아하여 몽상에 막연하다
 밥 먹으면 길을 가고 잠을 깨면 길을 떠나
 물 건너고 재를 넘어 십리 가고 백리 가니
 양주땅 지난 후에 포천읍 길가이고
 철원 지경 밟은 후에 정평읍 건너 보며
 금화금성 지난 후는 회양읍 막죽이라
 강원도 북관길이 듣기 보기 같으구라
 회양서 중화하고 철령을 향해 가니
 천험한 청산이요 축도 같은 길이로다
 요란한 운무중에 일색이 끝이 난다
 남여를 잡아 타고 철령을 넘는구나

수목이 울밀하여 엮어지락 자빠지락
 중허리에 못올라서 황혼이 거의로다
 상상봉 올라서니 초경이 되었구나
 일행이 허기져서 기장떡 사먹으니
 떡맛이 이상하여 향기롭고 아름답다
 햇불을 신칙하여 화광중에 내려가니
 남북을 몰랐으니 산형을 어이 알리
 삼경에 산을 내려 탁막에 잠을 자고
 새벽에 떠나서서 안변읍 어디때뇨
 할일 없는 내 신세야 복도적객 되었구나
 함경도는 초면이요 아태조 고토로다
 산천이 광활하고 수목이 만야한데
 안변읍 들어가니 본관이 나오면서
 포진병장 신칙하고 공식을 공궤하니
 시원케 잠을 자고 북향하여 떠나가니
 원산이 여기런가 인가도 굉장하다
 바다 소리 요란한데 물화도 장할시고
 덕원읍 중화하고 문천읍 숙소하고
 영흥읍 들어가니 웅장하고 가려하다
 태조대왕 태지로서 총총 가거뿐이로다
 금수산천 그림 중에 바다 같은 관새로다
 선관이 즉시 나와 위로하고 관대하며
 점심상 보낸 후에 채병화연 등대하니
 죄명이 몸에 있어 치하고 환송한 후
 고원읍 들어가니 본수령 오공신은
 세의가 자별키로 날 보고 반겨 하네
 천대객지 날 반길이 이 어른뿐이로다
 책방에 맞아들여 음식을 공궤하며
 위로하고 다정하니 객회를 잊겠구나
 북마 주고 사령 주고 행자 주고 의복 주니
 잔음행세 생각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다
 능신하고 발행하니 운수도 고이하다
 갈 길이 몇 천리며 온 길이 몇 천린고
 하늘 같은 저 철령은 향국을 막아 있고
 저승같은 귀문관은 울연히 쉬었구나
 표풍 같은 이내 몸이 지향이 어디때뇨
 초원역 중화하고 함흥 감영 들어가니
 만세교 긴 다리는 십리를 뻗어있고
 무변대에 창망하여 대야를 들러 있고
 장강은 도도하여 만고에 흘렀구나
 구름 같은 성첩보소 낙빈루 높고 높다
 만인가 저녁연기 추장에 그림이요
 서산에 지는 해는 원객이 시름이다
 술 잡고 누에 올라 칼 만지며 노래하니
 무심한 뜬 구름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유의한 강적 소리 객회를 더쳤세라
 사향한 이내 눈물 장강에 던져 두고
 백청루 내려와서 성내에서 잠을 자니
 서울은 팔백리요 명천은 백구리라

비 맞고 유삼 쓰고 함관령 넘어가니
 영태도 높거니와 수목도 더욱 장타
 남여는 날아가고 대로는 설였구나
 노변에 섰는 비석 비각단청 요조하다
 태조대왕 소시절에 고려국 장수되어
 말갈에 전승하고 공덕이 어제 같다
 역말을 갈아 타고 흥원읍 들어가니
 무변해색 들렀는데 읍양이 절묘하다
 중화하고 떠나 서니 평포역 숙소로다
 내 온 길 생각하니 처만리 되었구나
 실 같은 목숨이요 거미 같은 근력이라
 천천히 길을 가면 살고서 볼 것인데
 엄지를 뒤흘었으니 일신들 지체하라
 죽리를 가라시고 수화를 불분하니
 만신에 땀이 돌아 성중 지경 되었구나
 골수에 든 더위는 자고 새면 설사로다
 나장이 하는 말이 나으리 거동 보소
 엄엄하신 기력이요 위태하신 신관이라
 하루만 조리하여 북청읍에 묵사이다
 무식하다네 말이야 엄지 중일신이라
 생사를 생각하라 일시를 유체하라
 사람이 죽고 살기 하늘에 달렸으니
 네 말이 기특하나 가다가 보자꾸나
 북청서 유소하고 남송정 돌아드니
 무변대해 망망하여 동천이 가이 없다
 만산은 첩첩하여 남향이 아득하다
 마곡역 중화하고 마천령 다다르니
 안박재 육십리라 하늘에 맞닿았고
 공중에 걸린 길은 참바같이 설였구나
 달래덤불 엮혔으니 천일이 밤중 같고
 층암이 위태하니 머리 위에 떨어질 듯
 하늘인가 땅이런가 이승인가 저승인가
 상상봉 올라서니 보이는 게 바다이고 넓은 것이 바다이다
 몇 날을 길에 있어 이 재를 넘었던고
 이 영을 넘은 후에 고향 생각 다시 없네
 천일만 은근하여 두상에 비쳤구나
 원평읍 중화하고 길주읍 들어가니
 성곽도 장커니와 여염이 더욱 좋다
 비올 바람 일어나니 떠날 길이 아득하다
 읍내서 묵자하니 본관패 불안하다
 원 나오고 책방 오니 초면이 친구 같다
 음식은 먹거니와 포진 기생 불관하다
 엄지를 뒤흘었으니 꽃자리 불관하고
 죄명을 가졌으니 기생이 호화롭다
 운박하운 신명 보면 분상하는 상주로다
 기생을 물리치고 금연을 걸어내니
 본관이 하는 말이 영남양반 고집이라
 모우하고 떠나 서니 명천이 육십리라
 이 땅을 생각하면 묵특의 고토로다

황사의 일본토는 왕소군의 천

<북천가>는 작가 김진형이 홍문관 교리로 있을 때 이조판서 서기순의 비리를 상소했다가 반대파에 몰려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되었다. 이 작품은 유배 생활로부터 방면되어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읊은 가사이다. 내용은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령을 받는 신세, 서울로부터 북관까지 가는 유배과정, 북관에서 그곳 수령의 융숭한 대접과 칠보산 구경 및 기생 군산월과의 사랑, 북관에서부터 유배지 명천까지 이르는 과정, 명천에 도착하자마자 방면된 소식을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전부 담고 있다.

작가가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풀려났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은 만큼 감정의 절박함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모든 유배가 흔히 떠올리는 산발한 채 나졸들에게 붙잡혀 흠뻑 얼굴로 끌려다니는 신세는 아님을 잘 보여준다. 당대에는 유배가사보다는 기행가사로 이 작품을 소비했으며 죄인 신분으로 유명한 기생과 즐긴 행적을 늘어놓아 문학보다는 단순 흥밋거리로 소비되었다.

내용이 심히 길지만 위에서 설명한 이 작품의 구조로 파악하면 크게 새로운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은 없어서 연계교재에 수록된 부분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행가사로 쓰자니 문학성이 뛰어난 기행가사는 충분히 많으며 유배 가사로 쓰자니 감정의 절박함이 없어 문제를 출제하기에도 뚜렷하게 보이는 정서가 없다. 무고하게 유배를 당했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기생과 함께 향락을 즐기며 유람까지 하는 모습을 조선 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행~156행까지는 참소를 당해 유배지로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후 도착한 북관에서 그곳 수령이 화자가 곧 복권될 것을 알기에 극진히 대접하며 미운털이 박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곳이 어디매나 주인의 집 찾아 가니
 높은대문 넓은사랑 삼천석군 집이로다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김교리의 이번 정배
 죄없이 오는 줄을 북관 수령 아는 바요
 만인이 울었으니 조금도 슬퍼 말고 나와 함께 노사이다
 삼형 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노갓구나
 호반의 규모런가 활협도 장하도다
 그러나 내 일신이 귀적한 사람이라
 화광빈객 꽃자리에 기락이 무엇이나
 규문에 퇴송하고 혼자 앉아 소일하니
 성내의 선비들이 문풍하고 모여들어
 하나 오고 두셋 오니 육십인 되었구나
 책 끼고 청학하니 글제 내고 고쳐지라
 북관에 있는 수령 관장만 보았다가
 문관의 풍성 듣고 한사하고 달려드니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아무리 사양한들 모면할 길 전혀 없네

주야로 끼고 있어 세월이 글이로다
 한가하면 풍월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절세의 고종이라 시주에 회포 붙여
 불출문의 하오면서 편케편케 날 보내니
 춘풍에 놀란 꿈이 변산에 서리 온다
 남천을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 보니 오랑캐 지경이라
 개가죽 상하착은 상놈들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기민의 조석이라
 본관의 성덕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실 같은 이내 목숨 달반을 걸렸더니
 천만의외 가신 오며 명목이 왔단 말가
 놀랍고 반가워라 미친놈 되었구나
 절세에 있던 사람 향간에 돌아온 듯
 나도나도 이럴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서봉을 떼어 보니 정찰이 몇 장이고
 푹푹이 친척이요 면면이 가향이라
 지면의 자자획획 자질의 눈물이요
 옷 위의 그림 빛은 아내의 눈물이다
 소동파 초운인가 양대운우 불쌍하다
 그중에 사람 죽어 돈몰이 되단 말까
 명목이 대코 앉아 눈물로 문답하니
 집떠난지 오래거든 그후 일을 어이 알리
 만수천산 멀고먼데 네 어찌 돌아가며
 덤덤히 쌓인 회포 다 이룰 수 없겠구나
 녹아 말들어라 무사히 돌아가서
 우리집 사람더러 살았더라 전하여라
 죄명이 가벼우니 은명이 쉬우리라
 거연히 추석이라 가까이 성묘하네
 우리 곳 사람들도 소분을 하나니라

수령에게 대접을 받는 상황 중 일부이다. 분명 138행에서 죄인 신분으로 기생을 부를 수 없다며 기생을 무르고 '영남 양반 고집'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생과 함께 놀고 화자를 보러온 60명의 선비와 함께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긴다.

본관이 흐는 마리 이곳의 칠보산은
 북관 중 명승지(名勝地)라 금강산과 갖치 치니
 칠보산 한번 가서 방슈심산(訪水尋山) 었더흐고
 나도 역시 조커니와 의리에 난처흐다
 원지(遠地)에 쫓긴 몸이 형승의 노는 일이
 분의*에 미안흐고 침령(瞻聆)*의 괴이(怪異)흐니
 막음의 조컨마는 못 가기로 작정흐니
 주수(主首)의 흐는 마리 그러치 아니흐다
 악양루 황강경(黃岡景)은 왕등의 스적이오*
 적벽강 제적(在謫) 놀음 구소의 풍정이니
 김학스 칠보산의 무슨 힘이 잇스리오
 그 말을 반겨 듯고 황연이 이러느셔

나귀에 술을 싣고 칠보산 드러가니
구름 갓흔 천만 봉이 화도강산 광경이라
박달령 넘어가서 금장동 들어가니
곳곳의 물소리는 백옥을 깨쳐 있고
봉봉의 단풍 빛은금수장을 들렀세라
남여를 높이 타고 개심사에 들어가니
원산은 그림이오 근봉은 물형이라
육십명 선비들이 앞서고 뒤에 서니
풍경도 좋거니와 광경이 더욱 장타

기생들과 함께 논 다음 날 고을 수령인 본관은 화자에게 그 지역의 유명한 칠보산이 마치 금강산과 같이 아름답다며 유람을 제안한다. 그러나 화자는 마음에도 없는 죄인 신분 운운하며 타인의 평가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유람을 거절하지만, 본관은 고사를 인용하여 소동파도 귀양살이 도중 유람을 했다고 화자를 설득한다. 그제야 화자는 못 이기는 척 칠보산 유람을 한다.

창망한 지난 회포 개심사에 들어가서
밤 한 경 새운 후에 미경에 일어나서
소쇄하고 물을 여니 기생들이 앞에 와서
현신하고 하는 말이 본관사도 분부하되
김교리님 칠보산에 너 없이 놀음 되랴
당신은 사양하되 내 도리에 그럴소냐
산신도 섭섭하고 원학도 슬프리라
너희들을 송거하니 나으린들 어찌하랴
부디부디 조심하고 칠보청산 거행하다
사도의 분부 끝에 소녀들이 대령하오
우습고 부끄럽다 본관의 정성이여
풍류남자 시주객은 남관에 나뿐인데
신선의 곳에 와서 너를 어찌 보내리오
이왕에 너희들이 칠십리를 등대하니
풍류남자 방탕성이 매몰하기 어려왜랴
방으로 들라하여 이름 묻고 나 물으니
한 년은 매향인데 방년이 십팔이요
하나는 군산월이 십구세 꽃이로다
화상 불러 음식 하고 노래시켜 들어보니
매향의 평우조는 운우가 흠어지고
군산월의 해금소리 만학청봉 푸르도다
지로승 앞세우고 두 기생 옆에 끼고
연화만곡 깊은 곳에 올라가니
단풍은 비단이요 송성은 거문고라
상상봉 노적봉과 만사암 천불암과
탁자봉 주작봉은 그림으로 둘러지고 물형으로 높고 높다
아양곡 한 곡조를 두 기생 불러내니
만산이 더 높고 단풍이 더 붉도다
옥수로 양금 치니 송풍인가 물소리가
군사월의 손길 보소 곱고도 고을시고
춘산에 풀손인가 안동밭골 금량인가
양금 위에 노는 손이 보드랍고 알스럽다

남녀 타고 전향하여 한 마루 올라가니
아까 보던 산모양이 홀지에 환영하여
모난 불이 둥그렇고 회던 바위 푸르구나
절벽에 새긴 이름 만조정 물색이라
산을 안고 들어가니 방선암이 여기로다
기암괴석 첩첩하니 갈수록 황홀할사
일리를 들어가니 금강굴 이상하다
차아한 높은 굴이 석색창태 새로워라
연적봉 구경하고 회상대 향하다가
두 기생 간 데 없어 찾느라 골몰터니
어디서 일성가곡 중천으로 일어나니
놀라서 바라보니 회상대 올라 앉아
일지단풍 꺾어 쥐고 녹의홍상 고은 몸이
만장암 구름 위에 사람을 놀렷시고
어와 기절하다

연계 교재에서 생략된 부분인데 읽어보면 생략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본관이 화자의 검은 속마음을 꿰뚫고 칠보산 유람에도 기생들을 보낸다. 화자는 이에 본관을 '우습고 부끄럽다'며 꾸짖지만 기생들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노래 부르라 시키고 같이 술 마시고 논다. 풍경에 대한 언급도 크게 없어서 읽는 학생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몸이 이른 고지 신선의 지경(地境)이라
전성의 연분으로 경구(經句)의 자취(自取)하여
바람의 붓친 다시 이 광경 보깃고나
연적봉 지는 후(後)의 선녀를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회는 청천(靑天)의 소스 있고
비바회 서책봉(書冊峯)은 안전의 버러 있고
성황봉 보슬봉은 신선의 굴혈이라
미향은 술을 들고 만장운 한 곡조요
군순월 안즌 거동(舉動) 아조 분명 솟치로다
오동 복판 거문고의 금스로 줄을 메와
더쪽으로 타는 양이 거동도 곱거니와
섬섬(纖纖)한 손길 싯히 오식이 영농하다
네 거동 보고 느니 군명(君命)이 엄(嚴)하여도 반흔 번 흐깃고나
영웅절스(英雄節士) 업단 말은 사칙(史冊)에 잇는니라
니 마암 단단하나 네게야 큰말하랴
본 거시 큰 병(病)이요 안 본 거시 약(藥)이런가
이천 리 절시(絶塞) 중의 단정이 몸 가지고
거적(居謫)을 잘흔 거시 아조 모도 네 덕(德)이라
양금을 파흔 후의 절집의 느려오니
산승(山僧)의 촌물 보소 정결하고 향기 있다
이튼날 도라오니 호상대 노든 일이
전성인가 몽중인가 국은(國恩)인가 천은(天恩)인가
천애(天涯)에 이 횡식이 이럴 줄 아라던가
홍진하여 도라와셔 슈노(首奴)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시는 본관이 보너기로
기심을 다려스나 도라와 생각하니 호화한중(豪華閑中) 불안하다

다시는 지휘하여 기성이 못 오리라
 선비만 다리고서 시주(詩酒)의 기록하니
 청산이 그림 되야 술준의 썩러지고
 녹슈는 기리 되야 조희 우희 단청이라
 군산월의 녹의홍상(綠衣紅裳) 씨엿고나 썩이로다

화자는 칠보산 유람을 하며 칠보산을 신선들이 사는 곳이라 평하며 감탄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도 전생에 죄를 지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으로 환생했다며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한다. 칠보산 유람을 함께하는 기생 군산월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죄인 신분을 잊고 '반할 뻔'했다는 충격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칙'에도 영웅이면서 절개를 지키는 선비는 없다며 죄인 신분으로 기생과 함께 논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여러모로 거를 타선이 없는 위인이다. '본 거시 큰 병이요 안 본 거시 약이런가'는 군산월의 아름다움에 반해 선비정신을 잃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대구이다. 심히 불순하지만 출제된다면 군산월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실컷 기생들과 향락을 즐기고 나서는 다시는 기생과 놀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원지에 쫓긴 몸이~첨령의 괴이하니', '기성을 다려스나~다시는 지휘하여 기성이 못 오리라'에서 유배당한 선비로서의 체면과 다른 이들의 비난을 의식함과 동시에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내세우며 자신의 풍류 행위를 반성한다. 표면상 반성적 태도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진심을 알 수 없다. 워낙 도중에 풀려날 것을 알고 당당하게 지내던 사람이라...

TMI로 마지막 행의 '썩이로다'라는 표현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갈릴 수도 있겠으나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조선 시대에는 문인들이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쓴 글을 그 인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에 반영했다. 붓 한 번 잘못 놀렸다가 목이 날아가는 것이다. 이래서 강호한정가에 '역군은'이 빠지지 않는 것이며 임금을 좋아할 수 없을 만한 작가가 임금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월이 언제던고 구월구일 오늘이라
 광한림 이적선은 용산에 높이 쉬고
 조선의 김학사는 재덕산에 올랐구나
 백주향화 앞에 놓고 남향을 상상하니
 북병산 단풍경은 김학사 차지요
 이하의 황국화는 주인이 없었구나
 파리한 늙은 아내 술을 들고 슬프던가
 추월이 낮 같으니 조운의 회포로다
 칠보산 반한 늙이 소무굴 보려하고
 팔십리 경성땅에 구경차로 길을 떠나 창연히 들어가니
 북해상 대택중에 한가하고 외로워라
 추장은 가 없는데 갈 꽃은 슬프도다
 창파는 망망하여 회색을 연하였고
 낙엽은 분분하여 청공에 나렸구나
 충신의 높은 자취 어디가서 찾아보랴
 어와 거룩할사 소중량 거룩할사
 나도 또한 이럴망정 주상님 멀리 떠나

절역에 몸을 던져 회포도 슬프더니
 오늘날 이 섬위에 정성이 같았구나
 낙일에 칼을 잡고 후리쳐 돌아서니
 병산의 풍설중에 축도 같은 길이로다
 귀문관 돌아서니 음침하고 고이하다
 삼척을 드러서니 일신이 송구하다
 노방에 일본토는 왕소군의 천총인가
 처량한 어린 혼이 백야에 슬프도다
 춘풍에 한을 먹고 홍염을 울렸구나
 쟁쟁한 환괘 소리 월야에 우느니라
 술 한 잔 가뜩 부어 방혼을 위로하고
 유정으로 들어가니 명천음이 십리로다
 탄막에 들렀다가 경방자 달려드니
 무슨 기별 왔다던고 방환 기별 나렸도다
 천은이 망극하여 눈물이 망망하다
 문적을 손에 쥐고 남향하여 백배하니
 동행의 거동 보소 치하하고 거룩하다
 식전에 말을 달려 주인을 찾아가니
 만실이 경사로다 광경이 그지없다
 죄명이 없었으니 평인이 되었구나
 천은을 덮어쓰고 양계를 다시 보니
 삼천리 고향 땅이 지척이 아니런가
 행장을 재촉할 제 군산월이 대령한다
 선연한 거동으로 웃으면서 치하하네
 나으리 해배하니 작히작히 감축할까
 칠보산 우리 인연 춘몽이 아득하다
 이날에 너를 보니 그것도 군은인가
 그랬다가 만난 정이 맛 나고도 향기롭다
 본관의 거동 보소 삼현육각 거느리고
 이곳을 나오면서 치하하고 손 잡으며
 김교린가 김학산가 성군의 은택인가
 나도 이리 감축커든 임자야 오죽할까
 홍문 교리 정든 사람 일시라 전케하라
 지금으로 제안하고 그 길로 나왔노라
 이다지 생각하니 감사하기 그지없다

북관에서 즐거운 유흥이 끝난 이후 귀양길로 들어선다. 귀양길로 가는 동안 화자는 자신이 유배지로 떠나고 있음을 자각하며 우울한 감정을 표출한다. 주변 광경을 묘사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다 갑자기 화자의 유배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과 임금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 애절하지 않은 전후 상황이기에 물입이 쉽지 않다만 화자가 이렇게 말했으니 어쩔 수 없다.

군산월을 다시 보니 새 사람 되었구나
 형극중에 씻긴 난초 옥분에 읊겼구나
 진애의 야광주가 박물군자 만났구나
 신평에 물힌 칼이 다투고 나왔더냐
 꽃다운 어린 자질 임자를 만났구나

금병화축 깊은 밤에 광풍제월 닭 밝은 날
 글 지으며 화답하고 술 가지면 동배하니
 정분도 깊거니와 호사도 그지없다
 시월에 말을 타고 고향을 찾아 가니
 본관의 성덕 보소 남북 짓고 종 보내며
 이백량 횡재 내어 저 하나 따라주며
 거행에 하는 말이 피시고 잘 가거라
 나으리 유경시에 네게야 내외할까
 천리강산 대로중에 김학사 꽃이 되어
 비위를 맞추면서 좋게 좋게 잘 가거라
 승교를 앞세우고 풍류남자 뒤 따르니
 오던 길 넓고 넓어 귀흥이 그지 없다
 길주읍 들어가니 본관의 거행 보소
 금연화축 넓은 방에 기락이 가득하다
 군산월이 하나이다 풍정이 가득하다
 연연한 군산월이 금상첨화 되었구나
 신조에 발행하여 익병에 중화하고
 창해는 망망하여 동천에 그지없고
 병산은 중중하여 면면이 섭섭도다
 추풍에 채를 들고 성진을 들어가니
 북병사 마주 나와 두 군관 합석하니
 상읍관가 군병이오 길주 관청 흥안이라
 금축이 영롱한데 병사의 호강이라
 북관이 하는 말이 학사에 다린 사람
 얼굴이 기이하다 서울젠가 북도젠가
 청직인가 방자인가 이름은 무엇이며
 나는 지금 몇 살이고 손 보고 눈대보니
 남중일색 처음보네 웃으며 대답하되
 봉도 아이 데려다가 밤중에 옹긴 후에 장가들어 살리겠소
 종적을 감추우고 풍악중에 앉았으니
 병사가 취한 후에 소리를 크게 하되
 김교리 청직이야 내결에 이리 오라
 위령을 못하여서 공손히 나아드니
 손내 어라 다시 보자 어찌 그리 기이하고
 총모피 털토시에 옥수를 반만 내어
 덩석 드리 쥐라할제 빠치고 일어서니
 계집의 좁은 소견 미련코 매몰하다
 사나이 모양으로 손달라면 손을 주고
 혼연하고 천연하면 위여위여 하련마는
 가뜩이 수상하여 치보고 내려보고
 군관이나 기생이나 면면이 보던 차에
 매몰이 빠치는 양 제 버릇 없을소냐
 병사가 눈치 알고 몰랐노라 몰랐노라
 김학사의 아내신 줄 내 정영 몰랐구나
 만당이 대소하고 못 기생이 달려드니
 아까 섰던 남자몸이 계집통정 하겠구나
 양색단 두루막이 옥관 달아 애암쓰고
 꽃밭에 섞여 앉아 노래를 받아 주니
 청강의 옥동인가 화원의 범나비냐

닭 울며 일출 구경 망양정 올라가니
 금축에 꽃이 피고 옥호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동해를 건너보니
 일색이 오르면서 당홍바다 되는구나
 부상은 지척이오 일광은 술회로다
 대풍악 잡아 쥐고 태산을 굽어 보니
 부유 같은 이 내 몸이 성은도 망극하다
 북관을 몰랐다면 군산월이 어찌 올라
 병사를 이별하고 마천령 넘어간다
 구름 위에 길을 두고 남여로 올라가니
 군산월이 앞세우고 안전에 꽃이 피고
 군산월이 뒤세우면 후면에 선동이라
 단천에 중화하고 북청읍 숙소하니
 반야에 깊은 정은 금석 같은 언약이오
 태산 같은 인정이라 흥원에 중화하고
 영흥읍에 숙소하니 본관이 나와 보고 밥 보내고 관대하네
 고을도 크거니와 기악도 끔찍하다
 대풍악 파한 후에 행절이만 잡아두니
 행절이 거동보소 곱고도 고을시고
 청수부용 평신이오 운우양대 태도로다
 효두에 발행하여 고원을 들어가니
 주수의 반기는 양 내달아 손 잡으며 경사를 만났구나
 문천에 중화하고 원산장터 숙소하니
 명천이 천여리요 서울이 육백리라
 주막집 깊은 밤에 밤한경 새운 후에
 계명시에 소쇄하고 군산월을 깨워내니
 몽롱한 해당화가 이슬에 휘젓는 듯
 괴코도 아름답다 유정하고 무정하다
 옛일을 이를 게니 네 잠간 들어봐라
 이전에 장대장이 제주목사 과만 후에
 정들었던 수청기생 버리고 나왔더니
 바다를 건는 후에 차마 잊지 못하여서
 배 잡고 다시 가서 기생을 불러내어
 비수 빼어 버린 후에 돌아와 대장 되고
 만고명인 되었으니 나 본래 문관이라
 무변과 다르기로 너를 도로 보내는 게 이것이 비수로다
 내 본래 영남 있어 선비의 졸한 몸이
 이천리 기생 싣고 천고에 없는 호강
 끝나게 하였으니 험기하고 서울 가면
 분의에 황송하고 모양이 고약하다
 부디부디 잘 가거라 다시 볼 날 있으리라
 군산월이 거동보소 깜짝이 놀라면서
 원망으로 하는 말이 버릴 심사 계셨으면
 중간에 못하여서 어린 사람 호려다가
 사무친척 외론 곳에 계발몰어 던지시니 이런 일도 하나있가
 나으리 성덕으로 사랑이 배부르나
 나으리 무정키로 풍전낙화 되었구나
 오냐 오냐 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여

십리만 가자더니 천리나 되었구나
 저도 부모 있는 고로 원리한 심회로서
 웃으며 그리 하오 눈물로 그리 하오
 효색은 은은하고 추장은 명랑한데
 홍상에 눈물 내려 학사두발 희겠구나
 승교에 담아내어 저 먼저 회송하니
 천고에 악한 놈 나 하나 뿐이로다
 말 타고 돌아서니 이목에 삼삼하다
 남자의 간장인들 인정이 없을소냐
 이천리 장풍유를 일조에 놓쳤구나
 풍정도 잠간이라 흥진비래 되었구나
 안변원이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무정하오
 판관사도 무섭던가 남의 눈이 무섭던가
 장부의 헛된 간장 상하기 쉬우리라
 내 기생 봉선이를 남북시켜 앞세우고
 철령까지 동행하여 회포를 잊게 하소
 봉선이를 불러드려 따라가라 분부하니
 자색이 옥골이라 군산월이 고은 모양
 심중에 깊었으니 새낫보고 잊을소냐
 풍설이 아득한데 북천을 다시 보니
 춘풍에 아는 꽃이 진흙에 구르다가
 추천의 외기러기 짝없이 가는 이라
 철령을 넘을 적에 봉선이를 하직하고
 에꾸즌 이 내 몸이 하는 것이 이별이라
 조히 있고 잘 가거라 다시 어찌 못 만나라
 남여로 내 넘으니 북도산천 끝이 난다
 서름도 지나가고 인정도 끝이 나고
 풍류는 끝나고 남은 것이 귀흥이라
 회양에 중화하고 금화 금성 지난 후에
 영평읍 들어가서 철원을 밟은 후에
 포천읍 숙소하고 왕성이 어디매뇨 귀흥이 도도하다
 갈 적에 녹음방초 올 적에 풍설이오
 갈 적에 백의러니 올 적에 청포로다
 적객이 어제러니 영주학사 오늘이야
 술 먹고 마룻 타고 풍월도 절로 나고
 산 넘고 물 건너며 노래로 예 왔구나
 만사여생 이 몸이오 천고호걸 이 몸이라
 축성령 넘어가니 삼각산 반가워라
 중천에 솟았으니 귀흥이 높아 있고
 만수에 상화 피니 설상이 춘광이라
 삼각에 재배하고 다락원 들어가니
 관주인 마주 나와 우름으로 반길시고
 동대문 들어가니 성상님이 무강할사
 행장을 다시 차려 고향으로 가올 적에
 새재를 넘어서니 영남이 여기로다
 오천서 밤 새우고 가산에 들어오니
 일촌이 무양하여 이전 있던 행각이라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안에 드니
 애쓰던 늙은 아내 부끄러워 하는구나

어여쁠사 수득 어미 군산월이 네 왔더냐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남북풍장 일장춘몽 깨었구나
 어와 김학사야 그릇타 한을 마라
 남자의 천고사업 다하고 왔느니라
 강호에 편케 누워 태평에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으리라
 글지어 기록하니 불러들 보신 후에
 후세에 남자되야 남자를 부러말고
 이 내 노릇 하게되면 그아니 상쾌할가

죄인 신분에서 벗어난 화자는 군산월과 재회하여 사랑을 나누고
 는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온다. 화자는 마지막까지 거만한 태도
 를 놓지 않는데 귀양 생활을 일장춘몽으로 표현한 것까지는 좋았
 으나 '남자의 천고사업'을 다하고 왔다고 하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인
 다. 그러면서 그저 강호에 편하게 누워 태평하게 노는 것이 제일
 이라 하는 말로 작품을 마무리한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시각

<해 제>

「북천가」는 작가가 상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린 후 반대파의 모함에 의해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된 경험을 노래한 유배 가사이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이 올린 상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배 현실에 대한 불만과 현실 복귀로의 열망을 노래하는 대신, 유배 생활에서 느끼는 풍류와 여유로움, 흥취를 노래하며 자신의 호탕한 유배 생활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배 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다는 당시 사대부들의 비난을 의식하여, 작가는 사대부의 체면을 앞세워 풍류 생활에 대한 거부와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EBS의 시각에 따르면 이 작품은 유배 가사로, 작자가 홍문관 교리로 있을 때 이조판서 서기순(徐箕淳)의 비행을 논척(論斥)하다가 반대파에 몰려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되었다. 이 작품은 그 유배생활로부터 방면되어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읊은 가사이다. 내용은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령을 받는 신세, 서울로부터 북관(北關)까지 가는 유배과정, 북관에서 그 곳 수령의 융숭한 대접과 칠봉산(七峯山)구경 및 기생 군산월(君山月)과의 사랑, 북관에서부터 유배지 명천까지 이르는 과정, 명천에 당도하자마자 방면된 소식을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강호·태평 등을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만의 특징은 유배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함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당당한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수능완성 62p 강호사시가

중요도: 5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 |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ㄱ울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흘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강호에서 안빈낙도하며 임금을 생각함

- ① 강호의 사계절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계절에 따라 한 수씩 노래함
- ② 각 수마다 '강호(江湖)에'로 시작하여 '역군은(亦君恩)이샀다'로 끝맺는 반복적 구성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 |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이 노래는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생활을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읊은 연시조이다. 그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강호(江湖)에 (㉠)이 드니 (㉡)
 () ()
 이 몸이 (㉢)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노래 4수가 모두 골격은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에는 봄, 녀름, ㄱ울, 겨월 등 계절의 바뀜이 나타나고, ㉡에는 그에 맞는 계절의 풍취가 표현되었으며, ㉢에는 ㉢의 구체적인 내용, 즉 '한가(閑暇)히움, 서늘히움, 소일(消日)히움, 침지 아니히움' 등의 구체적

인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다.

<춘사>에는 강호에서 느끼는 봄의 흥취가 나타나고 있다. '탁료계변'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를 말하며,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여 유교적 이념인 '충'의 사상을 자연애와 결합하고 있다.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느니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앞서 분석한 구조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면 상황과약이 쉽게 될 것이다. 무더운 여름이 왔지만 초당(초가집)에서 할 일이 없이 강 바람을 쐬며 시원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유유자적한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자연'의 일부인 '강의 물결'이 '유신'하다고 표현한 것은 자연을 믿음직스럽다고 여길만큼 화자와 자연이 혼연일체가 된 상황이다. 이 역시 임금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여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강호(江湖)에 ㄱ울이 드니 고기마다 슬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시러 흘러 띄여 더더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앞서 두 수에서는 자연에서 느낀 감흥을 읊은 데 비해, 셋째와 넷째 수에서는 자연의 정황을 읊겨 자신의 마음의 여유를 시각적으로 노래한다. 쉽게 말해 시조의 골격 상 ㉠부분에 쓰인 표현의 특성이 다르다는 말이다.

고기마다 살이 올라오 풍요로운 가을을 배경으로 고기잡이를 소재로 하여 작은 배를 띄우며 소일하는 어부의 모습에 자신의 심정을 의탁하여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임금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여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히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에도 겨월이 찾아와 많은 눈이 내린 상황이다. 이 속에서 화자는 샷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자신의 상황에 편안하고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4수 역시 앞선 1,2,3수와 마찬가지로 강호에서의 생활을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역시 임금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여 충의를 드러내고 있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보기>

<보 기>

‘강호가도’란 고전 시가에서 사대부들이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에 귀의하여 생활하는 것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은 벼슬살이를 하다가 귀향하여 고향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했는데, 이들은 향리에 사유지가 확보되어 있었고, 명망을 기초로 한 독점적 지위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부담 없이 편한 일상을 즐길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작된 유사한 경향을 띠는 시가 작품을 묶어 강호가도 계열의 작품이라 한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그 시초가 되는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는 강호(자연)마저도 군주의 통치가 행해지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호가도’는 자연에의 귀의뿐만 아니라 도학적인 이념과 교화 의도까지 노래에 포함하게 되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우리 나라 최초의 연시조인 이 시조는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충(忠)’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강호가도의 즐거움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며, ‘강호사시가’는 그 전형적인 작품의 하나이다.

수능완성 62p 호아곡

중요도: 5

아히야 구럭 망태 어두 西山(서산)에 날 늦거다
 밤 지낸 고사리 흥마 아니 늘그리야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朝夕(조석) 어이 지내리

아히야 되롱 샷갓 출화 東澗(동간)에 비 지거다
 지나긴 낙대에 미늘 업슨 낙시 미야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興(흥)계워 흐노라

아히야 粥早飯(죽조반) 다오 南畝(남묘)에 일 만해라
 서투론 짜부를 놀 마조 자부려뇨
 두어라 聖世躬耕(성세궁경)도 亦君恩(역군은)이시니라

아히야 쇼 머겨 내어 北郭(북곽)에 새 술 먹자
 大醉(대취)흔 얼굴을 들빋체 시러오니
 어즈버 羲黃上人(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와다

- 조준성, 「호아곡」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 ❶ 동서남북의 방향성을 활용해 시상을 전개
- ❷ 각 수 초장에 '아히야'를 반복함으로써 제목과 긴밀하게 호응하여 운율감과 통일성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아히야 구럭 망태 어두 西山(서산)에 날 늦거다
 밤 지낸 고사리 흥마 아니 늘그리야
 이 몸이 이 푸새 아니면 朝夕(조석) 어이 지내리

고사리를 캐 먹고 사는 화자의 가난한 전원생활을 그렸다. 초장에서 아이를 불러 서산에 날이 늦어지니 구럭망태를 거두라고 했다. 구럭망태를 챙겨서 서산에 해가 퍼지기 전에 고사리를 캐러 가자는 말이다. 중장에서 밤을 지낸 고사리가 많이 자랐을 것이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다. 이는 이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보다는 자신의 삶과 '백이.숙제'고사를 연결 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쓰인 '고사리'는 화자의 안분지족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백이.숙제 고사
 자신들이 모시던 주나라 무왕이 실정하자 주나라 곡식을 먹기를 거

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먹다가 죽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숨어사는 '은사(隱士)'의 대명사로 쓰이며, 절개와 지조를 지닌 인물로 쓰이기도 한다.

아히야 되롱 샷갓 출화 東澗(동간)에 비 지거다
 지나긴 낙대에 미늘 업슨 낙시 미야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興(흥)계워 흐노라

비가 온 뒤 동쪽 시내에서 낚시를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고전 시가에 등장하는 낚시는 대개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는 풍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 역시 갈고리 없는 낚시 바늘을 매었다는 화자의 말을 통해 화자가 시내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고기를 잡고자 함이 아니라 풍류를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아히야 粥早飯(죽조반) 다오 南畝(남묘)에 일 만해라
 서투론 짜부를 놀 마조 자부려뇨
 두어라 聖世躬耕(성세궁경)도 亦君恩(역군은)이시니라

초장과 중장에 남묘에 일이 많다고 '죽조반'을 달라고 하거나 '짜부'를 마주 잡으려 하는 등 서툰 솜씨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역군은(亦君恩)이시니라'며 유교적 충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bs 평론 중
 그런데, 해당 작품은 조준성이 계축옥사 직후에 지은 것으로, 인륜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전원생활을 하며 대안적인 삶을 살 때 창작한 것으로, 작가가 극도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벼슬 살이를 하지 못하고 전원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 표현한 '역군은'이 이면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면 '역군은'은 임금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아니라 정쟁으로 얼룩진 혼란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히야 쇼 머겨 내어 北郭(북곽)에 새 술 먹자
 大醉(대취)흔 얼굴을 들빋체 시러오니
 어즈버 羲黃上人(희황상인)을 오늘 다시 보와다

화자의 흥겨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술'은 화자의 흥을 더하는 것으로 <2수>의 '낚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술에 취한 자신의 모습을 '희황상인'에 빗대 흥겨움을 드러내고 있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보기>

<보 기>

이 시는 조준성이 지은 연시조로 모두 4수이다. 각 수의 초장 첫구가 모두 '아히야'로 시작되어 '호아곡'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각 수마다 뒤에 칠언 절구로 직역한 한시와 함께 '서산에서 고사리를 캐다', '동쪽 냇물에서 고기를 낚다', '남쪽 밭에서 농사를 짓다', '북쪽 마을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다'로 그 작품 내용이 밝혀져 있다. 개별 작품의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수는 고사리를 캐 먹으며 사는 물욕을 모르는 자세를, 둘째 수는 강물에 낚시나 드리우며 지내는 한가한 흥취를, 셋째 수는 밭갈이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심정을, 넷째 수는 술에 취해 느끼는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동서남북의 방향성을 이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수능완성 165p 탄궁가

중요도: A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갖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울며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춤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울며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건달 수가 전혀 없다
 장초(叢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벼들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냐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

- ❶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는 내용을 나타냄
- ❷ 설의법을 사용하여 정서를 강조 [Ex.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 ❸ 대구적 표현으로 운율감을 형성 [Ex.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화자는 자신의 곤궁한 생활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하늘이 균등하게 만들었으나 자신의 인생은 너무 가난해 힘들다며 한탄한다. '삼순구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하다. 또한 화자의 가난이 공자의 제자인 안희와 원헌이 겪은 가난보다 심하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가난을 강조하여 한탄한다.

봄날이 따뜻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춡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빠꾸기가 농사를 보채는 따뜻한 봄이 돌아왔다. 화자도 봄이 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기가 없어 여러 이웃에게 빌리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씨앗마저 상태가 좋지 않다. 벼씨는 반 넘게 쥐가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양이 너무 적어 춡고 배고픈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짓고 코바람을 불어 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叢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화자는 종들에게 힘을 내라며 죽을 끓여 주었다. 그런데 종이 바늘 눈을 치뜨고 코바람을 불어 댄다. 종마저 상전인 화자를 무시하는 상황인 것이다. 잡초가 나기를 싫어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화자의 수확이 작다는 뜻이다. 그러나 단순히 먹을 음식이 적어서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가난으로 인해 환곡의 이자, 노역, 세금 등을 매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너무 힘들어 생각이 없는 나무를 부러워할 지경이다.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어 접대할꼬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가난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화자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 옷감과 곡식이 없어서 베틀과 술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또한 음식이 없으니 명절 차례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을 것이다. 화자는 친척과 내빈왕객을 어떻게 접대할꼬 걱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어 여의려노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노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가난을 '귀신'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궁귀를 좋은 술과 안주까지 대접해가며 배웅하지만 궁귀는 희로애락을 함께한 화자의 곁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한다. 화자는 이런 궁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을 체념한다. 특히,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의 표현은 화자의 가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이 드러나는데, 가난만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궁핍한 삶을 어느 정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는 화자의 심정을 잘 표현한다. 궁귀를 의인화하여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준 해당 부분은 궁핍한 상황을 희화화하면서 동시에 체념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결국 가난도 내 분수라고 말하며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화자가 운명론적 사고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보기>

<보 기>

이 작품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 체념적으로 가난을 수용하는 자세를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이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난 귀신'과의 대화 상황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며, 당대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을 다양한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생활상으로 표현해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런 사실적 표현은 화자의 가난이 너무나도 심해 벗어날 수 없을 정도임을 강조하며 화자의 한탄하는 처지와도 호응한다. 그러나 화자의 인식은 한탄에서 끝나지 않는다. 가난을 '궁귀'로 의인화하여, 자신의 가난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체념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의 표현은 화자의 인식 변화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희화화하게 된 체념적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수능완성 199p 매화사

중요도: 5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밋지 안얏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축(燭) 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제2수>

브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딛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허니
 아무리 어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운 꽃치 척축(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휘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밭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매화의 절개와 생명력 예찬

- ❶ 의인법이 사용됨 [Ex. 너, 자는 매화]
- ❷ 설의법이 사용됨 [Ex. ~이야 아슬소냐, ~엇지 감히 휘리]
- ❸ 대구법이 사용됨 [Ex. 척축(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 ❹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냄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어리고 성근 매화(梅花) 너를 밋지 안얏더니
 눈 기약(期約) 능(能)히 직켜 두세 송이 푸엿구나
 축(燭) 잡고 갓가이 사랑할 제 암향부동(暗香浮動)하더라

‘어리고 성근’은 매화의 연약하고 영성한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화자는 이런 매화를 밋지 않았으나, 눈이 오면 꽃을 피우겠다는 약속을 지켜 꽃을 피웠다. 화자는 매화의 향기가 은은히 떠돈다고 표현하며 매화의 고결하고 그윽한 자질을 예찬한다.

브름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딛치니
 찬 기운(氣運) 시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擄)허니
 아무리 어우려 허인들 봄뜻이야 아슬소냐

6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면서 매화를 지조와 생명력을 갖춘 고고한 대상으로 예찬하고 있다. ‘바람’과 ‘눈’이라는 시련이 찬 기운으로 매화를 괴롭히려 하나 매화는 이에 굴하지 않고 봄을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지킨다. 화자는 이렇게 봄뜻을 지키는 매화의 의지를 예찬한다.

동각(東閣)에 숨운 꽃치 척축(躑躅)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휘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밭게 뉘 이시리

매화의 높은 절개와 생명력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며 예찬하고 있다. 온 세상에 눈이 쌓인 이른 봄에 필 수 있는 꽃은 매화밖에 없다고 말하며 매화의 지조와 생명력이 다른 대상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예찬하고 있다.

3 | 깊이 들어가기

EBS의 <보기>

—<보 기>—
 조선 고종 때 안민영이 지은 전 8수의 연시조이다. 작가가 1870년 겨울에 스승인 박효관의 운애산방(雲崖山房)에서 벗과 더불어 놀 때, 박효관이 가꾼 매화가 책상 위에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영매가’ 혹은 ‘영매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매화를 의인화하여 매화의 지조, 절개, 생명력 등을 예찬하고 있다.

수능완성 224p 면양정가

중요도: 55

무등산(無等山) 흥 활기 뵈히 동(東)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췌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어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
 의 모습 짐작 호노라
 일곱 구비 흥더 움쳐 무득무득 버러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굽기 든 늘근 놓이
 선증을 곳 췌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회 우희 송죽(松竹)을 해혀고
 정자(亭子)를 안쳐시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千里)를 가리라 두 나리 버러는 듯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 느린 물히
 정자(亭子) 압 너븐 들히 울울(兀兀)히 퍼진 드지
 넘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앗바
 닳는 듯 쓰로는 듯 밤늦으로 혼르듯 듯
 므조친 사정(沙汀)은 눈긱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력기는 므스거늘 어르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노화(蘆花)을 사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노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두르고 쏘즌 거슨 뵈힌가 병풍(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곳는 듯 닳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플거니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는 양호야 하늘도 짓치 아너
 웃독이 섰는 거시 추월산(秋月山) 머리 짓고
 용구산(龍龜山) 몽선산(夢仙山) 불대산(佛臺山) 어등산(魚登山)
 용진산(湧珍山) 금성산(金城山)이 허공(虛空)의 버러거든
 원근(遠近) 창애(蒼崖)의 머븐 짓도 하도 할샤
 흰 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로니는 산람(山嵐)이라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장공(長空)의 췌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가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사양(斜陽)과 서거지어 세우(細雨)조춘 뿌리
 는다
 남여(籃輿)를 비야타고 솔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하는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 호느괴야
 나모 새 즈즈지여 수음(樹陰)이 열린 적의
 백 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즈서리 빠진 후의 산 밧치 금슈로다

황운(黃雲)은 또 엇지 만경(萬頃)의 편거지요
 어적(漁笛)도 흥을 겨워 들릴 췌라 브니는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뵈몰커늘
 조물(造物)리 현스호야 빙설(氷雪)노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버
 러세라
 건곤(乾坤)도 가음열샤 간 디마다 경이로다
 인간(人間)을 췌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람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랑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노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홀소나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호라
 이 뵈히 안자 보고 저 뵈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호 므움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설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 흥 청려장(靑藜杖) 다 뵈되여 가노미라
 술리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블느며 트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을프락 프롬호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넘고 넘고 일월(日月)도 흥가호다
 회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기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렇굽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양정가」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❶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❷ 시선의 이동에 따라 자연 경치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❸ 화자의 정서가 자연물에 이입되어 있다 [Ex. 황앵이 교태겨워 한다.]

2 | 임권의의 짚어주기

무등산(無等山) 혼 활기 뵈히 동(東)다히로 버더 이서
 멀리 췌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어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
 의 모습 짐작 호노라
 일곱 구비 혼더 움쳐 므득므득 버러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굽기 든 늘근 놓이
 선증을 곳 췌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회 우히 송죽(松竹)을 헤혀고
 정자(亭子)를 안쳐시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千里)를 가리라 두 나리 버러는 듯

매우 긴 작품이다. 큰 흐름 속에서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 아는 것이 헛갈리지 않는 방법이다. 따라서 작품의 구성 즉, 기승전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작품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해당 작품은 기: 제월봉의 형세 및 면양정의 모습 / 승: 면양정 주변의 승경 / 전: 면양정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관 / 결: 작가의 풍류생활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구성이며, 각 부분에서 어떠한 비유적 표현과 계절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에 주목하며 읽는다면 작품 정리가 쉬워질 것이다.

해당 부분은 제월봉의 형세와 면양정의 모습을 그린 부분이다. 무등산에서 떨어져 나온 제월봉의 지리적 근원을 밝히고 있으며, 제월봉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일곱 굽이를 그리고 있다. 또한 제월봉의 가운데 굽이를 용이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면양정의 모습을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그리고 있다. 여기서 ‘날개’는 면양정의 지붕을 비유한 표현이다.

옥천산(玉泉山) 용천산(龍泉山) 느린 물히
 정자(亭子) 압 너븐 들히 울울(兀兀)히 퍼진 드시
 넘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雙龍)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닳는 듯 쓰로는 듯 밤늦으로 혼르듯 듯
 므조친 사정(沙汀)은 눈긷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럭기는 므스거늘 어르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노화(蘆花)을 사이 두고 우러곰 좃니는노
 너븐 길 밧기요 긴 하늘 아리
 두르고 쏘즌 거슨 뵈힌가 병풍(屏風)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 듯 느즌 듯
 곳는 듯 닳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는 양호야 하늘도 젓치 아너
 웃독이 섰는 거시 추월산(秋月山) 머리 짓고
 용구산(龍龜山) 몽선산(夢仙山) 불대산(佛臺山) 어등산(魚登山)

용진산(湧珍山) 금성산(金城山)이 허공(虛空)의 버러거든
 원근(遠近) 창애(蒼崖)의 머근 짓도 하도 할샤

면양정의 근경과 원경 즉, 면양정 주변의 승경을 그리고 있다. 면양정 앞 시냇물/ 시냇가 기러기의 교태/ 면양정 주변 산의 모습으로 3가지 대상을 구분하여 내용을 파악한다면 내용이 복잡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산에서 내린 물이 끊임없이 흐르며 이 시냇물을 용과 비단에 비유하며 그리고 있다. 또한 ‘넘거든 기노라 프르거든 회지 마나’라는 표현은 이후 <관동별곡>에 영향을 준 표현이다. 눈같이 펼쳐진 모래밭에서 기러기들이 사랑을 나누며 앉았다 내려갔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 있다. 물가의 기러기의 교태를 그리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곳는 듯 닳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의 표현은 산의 다양한 모습을 열거법과 대구법을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산들은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있다.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등의 많은 산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흰 구름 브흰 연하(煙霞) 프로니는 산람(山嵐)이라
 천암만학(千巖萬壑)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희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장공(長空)의 췌나거니
 광야(廣野)로 건너가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사양(斜陽)과 서거지어 세우(細雨)조츼 뿌리
 는다
 남여(籃輿)를 비야타고 솔 아리 구분 길노
 오며 가며 하는 적의 녹양(綠楊)의 우는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 호논괴야
 나모 새 즈즈지여 수음(樹陰)이 얼린 적의
 백 척(百尺) 난간(欄干)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수면(水面) 양풍(涼風)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즈서리 싸진 후의 산 빗치 금슈로다
 황운(黃雲)은 또 엇지 만경(萬頃)의 편거지요
 어적(漁笛)도 흥을 계워 들롤 쓰라 브니는다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미물커늘
 조물(造物)리 흰스호야 빙설(氷雪)노 꾸며 내니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버러세라
 건곤(乾坤)도 가음열샤 간 디마다 경이로다

면양정의 아름다운 경관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있다. 다만 한자어가 많아 해석이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의 고전시가 학습을 위해서도 몇 개의 단어는 암기해야 한다. ‘연하(煙霞)’는 안개와 노을을 말하는 것이다. 연하와 산 아지랑이가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드나들면서 또 공중으로 떠갔다 들판으로 갔다가, 석양과 섞여 가랑비를 뿌린다. 이는 면양정의 경치를 그린 표현이다. ‘장공(長空)’은 공중을 말한다.

이어서 면양정의 여름 경치를 그리고 있는데, 그중 ‘황앵(黃鶯), 수음(樹陰), 양풍(涼風)’이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화자는 가마

를 타는 것으로 보아 높은 신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황앵(黃鶯) 교태(嬌態) 겨워’한다는 표현은 피꼬리가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녹음이 울창한 긴 난간에서 즐기고 있다.

산빛이 수놓은 비단 같다고 표현하며 가을 경치를 그리고 있다. 또한, 누렇게 익은 곡식의 물결이라는 뜻의 황운을 통해 가을이 도래했음을 나타낸다. 어부가 부는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 것이나 물으며 가을의 경치를 그리고 있다.

겨울 경치는 아름다운 설경에 감탄하며 나타내고 있다. 조물주를 예찬하며,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면양정에서 눈덮인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울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허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랑 언제 낚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뉘 곳츠란 뉘 쓸려노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하라
 이 피히 안자 보고 저 피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흔 밋음의 버릴 일리 아조 업다
 설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히리아
 다만 흥 청려장(靑藜杖) 다 피되어 가노미라
 술리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불느며 특이며 허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을프락 폰롬하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흥가하다

화자가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적 삶이 드러난 부분이다.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있지만, 자연을 즐기며 생활하기도 겨울이 없다.

화자는 밤을 줍고 고기를 낚고 자연을 완상하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설 틈도 없을 정도이므로 사람들에게 화자가 있는 곳으로 오는 길을 전할 틈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화자는 술을 마시며 벗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며, 근심이 없이 취흥에 젖어 다양한 행동을 취한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 천지가 넓고 넓으며 세월이 매우 한가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피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岳陽樓) 상(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오다
 호탕 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굼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희황(羲皇)’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중국의 고대 황제인 ‘복희 황제’를 말한다. 화자는 자신의 생활이 복희씨의 태평성대만큼 또

신선에 견줄 만큼의 풍류라고 표현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신이 강산풍월을 거느리고 평생을 다 누리다면 이백보다 더 정다운 회포를 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교적 충의를 나타내고 있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보기>

<보 기>

이 작품은 작가가 고향에 내려와 면양정을 짓고 살면서 창작한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 면양정 주변의 자연 풍경을 근경과 원경으로 그려 내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결사 부분의 ‘역군은 이 샷다’와 같은 관습적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형식과 내용에서 정극인의 「상춘곡」의 영향을 받고,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면서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해당작품은 ‘제일봉의 형세 및 면양정의 모습 / 면양정 주변의 승경 / 면양정 사계절의 아름다운 경관 / 작가의 풍류생활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승전결 구성으로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세밀한 묘사방식을 통해 자연 속에 은거하며 화자가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임금에 대한 은혜를 함께 노래한다는 점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유교적 충의사상을 동시에 담은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한 대표작이다.

수능완성 246p 사우가

중요도: 5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데업고 대숲이 푸르러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1 |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주제> : 사우인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의 덕성 예찬

❶ 자연물을 인격화함

❷ 설의법이 사용됨

[Ex.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동리에 심은 국화 귀한 줄을 뉘 아나니, 엇디한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 하느냐]

❸ 영탄법이 사용됨

2 | 임권의T의 짚어주기

바위에 섰는 솔이 늠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바위에 서있는 소나무는 ‘풍상(風霜)’즉 바람과 서리로 표현되는 고난을 겪고도 여위지 않으며 늠연(위엄있고 당당함)하다. 또한 소나무는 봄빛 즉, 푸른빛을 사계절 변함없이 갖고 있는데, 화자는 이러한 솔의 늠연함과 불변성이 반갑다고 한다. 이는 솔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뉘 아나니
 춘광(春光)을 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화자에 따르면 국화는 봄별을 마다하고 ‘엄상(嚴霜)(늦가을의 된서리)’의 시련 속에서 홀로 피어나는 고결하며 소신있는 존재이다. 화자는 ‘귀한 줄을 뉘 아나니’라고 물으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국화의 가치를 잘 안다는 자부심을 나타낸다. 국화의 고결한 특성은 선비로서의 용기와 소신과 공통점이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국화를 ‘내 벗’이라고 표현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윽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앞서 공부한 <매화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수많은 꽃들 중에 매화를 심은 이유는 눈 속에 피어 흰빛이 소중하며 그윽한 향기 또한 귀하기 때문이다. 화자는 차디찬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과 그윽한 향기로 표현되는 매화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백설(白雪)이 잦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데업고 대숲이 푸르러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하나니

꽃과 대나무를 대조하여 대나무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 흰 눈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으며 바람속에서도 흔들리기만 할 뿐 그 푸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절개와 불변성에 감탄하여 화자는 대나무를 예찬한다.

3

깊이 들어가기

EBS의 <보기>

<보 기>

이 작품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 지조를 꺾는 속된 선비들과는 달리 시류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사우(四友)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화자는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네 벗(사우)으로 칭하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속성을 통해 올곧은 선비의 기상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를 통한 작품 해석

<해 석>

이 작품은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가 지닌 덕성을 노래하고 있는 연시조로, 각각의 자연물이 지닌 속성에서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